

규모 7.4 강진 덮친 콜롬비아… 복음주의 교회들 피해 상황 파악 나서

일부 지역 통신 두절…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에 어려움

콜롬비아를 강타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곳곳에서 건물 피해와 대피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복음주의 교회들이 소속 교회와 성도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콜롬비아복음주의연합(CEDECOL)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발생한 지진 이후 피해 지역에 위치한 회원 교회 및 지역 사회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CEDECOL의 안드레아 핀토(Andrea Pinto) 이사 보좌관은 “회원들과 교회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지역을 살펴보고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이 두절되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커피 생산지대

(Coffee Region)와 초코(Chocó) 지역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핀토는 “현재 해당 지역과 통신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CEDECOL이 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지역은 칼리(Cali), 마니살레스(Manizales), 커피 생산지대, 키브도(Quibdó) 등이다. 특히 초코 지역의 회원들과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CEDECOL이 접수한 초기 보고에 따르면 커피 생산지대를 중심으로 건물에 구조적 손상이 발생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건물에서 긴급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토는 “커피 생산지대에서는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으며, 위험 때문에 다시 건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머물 수 있도록

임시 캠프를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가정은 이번 지진으로 집 안의 소지품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는 초기 보고에 해당하며, CEDECOL은 피해 지역의 교회 및 성도들과 계속 연락하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확인하고 있다.

메데인에서는 형제교회(Church of the Brethren) 마르셀로 페레리(Marcelo Ferrer) 목사가 자신의 가족과 교회 성도들이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다.

페레리 목사는 메데인에서도 간헐적인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진에 익숙하지만, 이번 지진은 흔들림이 지속된 시간이 평소와 크게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곳에서는 가끔 건물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오랫동안 흔들렸다”며 “체감상 거의 2분 가까이 지속된 것 같다”고 했다. 장시간 이어진 진동으로 건물의 안전성

에 대한 우려도 커졌지만, 페레리 목사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건물들이 비교적 잘 견뎌냈다고 전했다.

그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피해가 심하지 않았다”며 “주택들도 상당히 잘 견뎌냈다”고 밝혔다.

페레리 목사는 왓츠앱 단체대화방을 통해 교인들의 상황을 확인했으며, 초기 보고를 통해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상황은 달랐다. 특히 커피 생산지대에서 피해가 집중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 지역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고 주택이 붕괴됐으며, 사망자 대부분도 그곳에서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페레리 목사는 지진을 경험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하는 한편, 이번 재난을 통해 신앙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족과 교회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달리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페레리 목사의 가족과 형제교회는 모두 안전한 상태이며, 피해가 큰 지역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발레델카우카주 툴루아(Tuluá)에서도 강한 진동으로 주민들이 큰 공포를 경험했다.

현지 소프트웨어 기업 소프트웨어 레딜(Software Redil)의 상업 매니저인 브라한 에르난데스(Brahian Hernández)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툴루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진 당시 발생한 소리를 강하게 기억했다.

에르난데스는 “땅이 깊게 울부짖는 듯한 소리와 강한 진동으로 나무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다른 피해 지역에서는 건물의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발생했으며, 지붕이 무너

져 주민들이 위험에 처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에르난데스의 가족 역시 직접적인 위험을 겪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있던 곳에서 지붕 일부가 무너질 뻔했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의 머리 위로 지붕 일부가 떨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무사했다”며 “그러나 이후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증언은 발레델카우카주 툴루아 지역 주민들이 강진 당시 경험한 공포와 피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CEDECOL은 현재 통신이 복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 교회 및 목회자들과 연락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교회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현지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로부터 추가적인 피해 보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경 기자

성누가회 힐링핸즈, 제10차 몽골 의료선교 진행

39명 참여해 내과·산부인과·치과·한의학·약국 운영
이들간 약 260명 진료

성누가회 힐링핸즈 의료선교팀은 몽골 복음주의연맹(MEA),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EMAK), 몽골기독교의사회(MCMA)와 함께 제10차 몽골 의료선교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선교에는 한국에서 39명의 힐링핸즈 팀원이 참여했으며, 8월 3일부터 5일까지 몽골의 한 기독교계 알코올 중독치료센터에서 의료봉사와 교육봉사를 진행했다.

의료선교팀은 8월 1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울란바토르로 이동한 뒤 2일 의료선교 장소에 도착해 사전 준비를 했다.

3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몽골복음주의연맹 대표 OTGONBAYAR가 환영사를 전하며 한국 의료선교팀의 방문에 감사를 표했다. 성누가회 신명섭 대표는 몽골의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며 몽골의 부흥을 바라는 마음으로 의료선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학, 약국 등을 운영하며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진



성누가회 힐링핸즈 의료선교팀이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제10차 몽골 의료선교를 진행했다.

료 대상에는 알코올중독치료센터 환자와 몽골의 기독교 사역자들이 포함됐다. 3일과 4일 이들 동안 약 260명이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성누가회에 따르면 몽골은 병원이 울란바토르에 집중돼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고,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번 의료선교 현장을 찾은 환자들은 일반

주민들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몽골기독교의사회 대표 닥터 Mart는 의료선교팀에 감사를 표했으며, 신명섭 대표에게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진료 방법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

5일에는 알코올중독치료센터 사역자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의 우주연 의사(피부과 전



성누가회 신명섭 대표가 진료하고 있다. © 성누가회

문의)가 감염 부위 처치, 동상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을 강의했으며, 참석자들은 드레싱 키트와 붕대 사용법,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했다. 성누가회는 센터에 응급처치 세트도 기증했다.

폐회식에서는 센터의 목사가 자신의 알코올중독 경험과 예수를 믿은 후 새 삶을 살게 된 과정을 간증하고, 의료봉사와 응급처치 교육에 감사를 표했다. 성누가회 의료선교팀은 몽골어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찬양했다.

몽골복음주의연맹 부사무장이자 전 몽골기독교의사회 대표인 닥터 Amar는 의료선교팀에 감사를 전하고 이번 사역이 몽골 기독교계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에게 수료증(Certificate)을 전달했다.



이번 의료선교 기간 약 260명이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성누가회

의료선교팀은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센터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러깅 봉사도 진행했다.

성누가회는 이번 의료선교를 준비하면서 수개월 전부터 사역을 위한 기도를 이어왔으며, 몽골 현지에서도 저녁마다 기도모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선교 단장을 맡은 성누가회 신명섭 원장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경험하곤 한다. 이번 의료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다”며 “이 몽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부흥되기를 바라며, 이번 의료선교를 통해

서 몽골의 성누가회가 몽골복음주의연맹과 더 긴밀해지는 계기가 되어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호세아서의 하나님 사랑·회복, 어떻게 설교할까? >> 3면

SK, 이로 전국 10곳 ‘독립운동 기억하길’ 조성 >> 24면

JESUS LOVE

교회 단체 상품 주문 문의

볼펜·선물세트·행사 기념품

온라인 주문 및 단체 문의

02-723-1335

www.withjesuslove.shop



Scan me!



▲고급 볼펜

세라믹 텀블러 ▶



▼말씀 머그컵



▼UV 장우산



예장 통합은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부총회장 후보들 견해는

최근 이리신광교회서 서부지역 정견발표회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정훈, 예장통합) 제111회 부총회장 후보 서부지역 정견발표회가 최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예장통합 총회 선거관리위원회(회장 윤한진 장로)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후보자 소개와 권역별 주제 정견 발표에 이어, 대선 후보 토론 방식을 접목한 공통질문 및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이 도입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각 후보의 소견 발표와 함께 지지 발언에 나선 소개자들의 증언, 그리고 후보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견발표회에서 먼저 기호 3번 전세광 목사(평북노회 세상의빛교회)의 순서로 그를 소개하고 나선 조영구 목사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은 그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며 “그는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체속과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능력으로 깨뜨릴 수 있을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단상에 오른 전세광 목사는 “지금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는 많이 위축되어 가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교회와 지도자들이 사회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장 장로회적이고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할 우리 교단의 대

표자를 뽑는 이 선거가 이상하다고들 한다”라며 “총회의 정체성, 공공성, 건강성 회복으로 교단의 대사회적 신뢰 회복의 길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호 1번 황순환 목사(충청노회 서원경교회)의 순서로 그를 소개하고 나선 주문장 목사는 “신학교 시절 황순환 학생은 가난했지만은 자신감이 있었고 정직했고 배플기를 아주 좋아했던 그런 친구였다”고 회고하며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지지 발언을 했다.

‘호남의 아들’을 자처한 황순환 목사는 익산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전국으로 흩어져 나가듯이 생명 운동을 전개하는 총회를 만들어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아무리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신뢰가 있는 그래서 소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총회를 만들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호 2번 김한호 목사(강원노회 춘천동부교회)의 순서로 그를 소개하고 나선 서화평 목사는 “상대방의 목소리에 항상 먼저 귀를 기울였고 지혜를 그리고 겸손하게 마음을 모아내는 따뜻한 소통의 리더십을 지니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깨끗하고 신실한 목회자”라며 “독일에서 디아코니아 학위를 받은 전문가로서 세상 속



예장통합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정견발표회가 열린 모습. 각 후보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공보 유튜브 캡처

에서 회화를 신뢰하게 하는 그런 회복을 시키는 데 앞장선 일꾼”이라고 평가했다.

정견 발표에 나선 김한호 목사는 “저희 후보자들이 압장문을 정확히 세 분이 제출했다. 그런데 그 답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리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선거 과정의 소통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의 조치를 들었는지, 무엇이 우리가 잘못했는지 적어도 그 이야기가 먼저 선행됐어야 했다”며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희망은 교회다. 이 회합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명해야 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장로 부총회장 단독 후보 박기상 장로(영등포노회 시온성교회)에 대해 이종근 목사는 “대학 강단에 서서 후학을

이게 이론과 학문을 가르쳤던 교수 출신”이라며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언제나 올바름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다. 이어 “총회 회계와 재정부장 등을 거치며 4,500억 되는 총회 예산을 실행을 했고, 집행을 했고, 그거를 설계를 할 수 있는 장로 부총회장 후보”라고 실무 능력을 내세웠다.

이어진 공통질문과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순서에서는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다뤄졌다. 첫 번째 공통질문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인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의 통전적 지향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내외 교회연합운동 속에서 교단이 감당해야 할 역할 및 WCC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네 후보는 공통적으로 ‘복음적 에큐메니칼’ 기조를 강조하며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언급했다.

황순환 목사는 “1968년 WCC 유살라 대회에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암살 때문에 선교단 인간화라고 정의를 내렸다. 1970년 독일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선교는 복음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고 반론했다. 우리 교단의 선교 신학은 복음적 에큐메니칼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한호 목사는 “WCC 활동에는 위험성도 있다. 우리 교단은 선도적 위치에 있기에 항상 주시하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복음과 성경중심으로 바르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기관장을 세우는 것으로 협력했다고 해서는 안되고 여러 방면에서 지지하고 적극적인 경제적 협조가 따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광 목사는 “WCC가 다양성 속 일치를 이뤄나가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교단은 순수한 복음주의 입장에 서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잘 치료

하며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다. 치유적 에큐메니칼 리더십으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오해와 잘못을 지적하며 포용하며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기상 장로는 “우리 교단은 진보와 보수의 균형적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도 한 교총, 한장총, NCKK 등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가입되어 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성을 가진 우리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의 균형을 이루며 통합의 정신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공통질문으로는 교회의 대사회적 소통 방안과 정부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교단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김한호 목사는 “우리 교단은 연합기관을 잘 활용해 대사회적 소통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성이 작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후 위기, 재난 등의 문제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사회적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노회와 총회라는 기관을 통해 정리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광 목사는 “교단과 한국교회가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대변인실을 만들어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대사회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라며 “예를 들면 1945년 태극기 국민배례를 국가에서 정하려 했는데 교단 제35회 총회에서 그걸 막기로 결의하고 청원서를 올려 원래 계획이 바뀐 적이 있다. 총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기상 장로는 “특별히 공공성 회복을 위해 사회에서 산학연(산업체·대학·연구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공공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같이 대사회적인 문제에도 연대가 필요하다”며 환경, 인구, 교육정책 등의 분야에서 교계 연합기관 및 정부 기관과 소통하며 정책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황순환 목사는 “대사회 신뢰도가 75.4%로 추락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한국교회로서 사회를 대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설 때 사회로부터 영적 권위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원장 윤한진 장로가 발언한 뒤, 후보자 간 상호 질문과 토론이 이어져 논길을 모았다. 전세광 목사는 황순환 목사에게 “교회를 타락시키는 금권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황 목사는 “선관위가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나 또한 그래야 사회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순환 목사는 김한호 목사에게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가야 하고, 지역 속에서 섬김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미시오 데이’가 이뤄질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한호 목사는 전세광 목사에게 “군선교와 농촌선교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전 목사는 “군선교는 황금여정, 농어촌선교는 블루오션이며, 자원자들이 지원을 받는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해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토론 진행자인 표대중 장로(창동영광교회)가 박기상 장로에게 “변화하는 선교환경 속에서 총회 선교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라고 묻자, 박 장로는 “국내 이주인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교가 속인주의로 변하는 상황에서 사역자들을 대우하며 이미 들어와 있는 선교 대상자들을 복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견발표회에 앞서 드러진 예배는 김상종 목사의 사회로 신정호 목사가 설교하고 권오국 목사가 축도했으며, 선관위원장 윤한진 장로가 인사했다. 서부지역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번 선거 레이스는 11일 중부지역(가장제일교회)을 비롯해 13일 서울·수도권지역(연동교회), 18일 동부지역(포항중앙교회)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의학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앞당겨 전 세계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며, 내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한국안센은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의 국내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
혹은 www.janssen.com/korea 에서 확인하세요.



Johnson&Johnson

NCKK “폭염은 사회적 재난...

교회 개방해 취약계층 생명권 지켜야”

폭방 주민·독거노인·야외 노동자 등 보호 강조...

공공 쉼터·작업중지권 보장도 요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을 기후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교회가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NCKK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최근 ‘폭염의 시대, 교회는 생명의 그늘이 됩시다’라는 제목의 제안문을 발표하고 한국교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은 더 이

상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교회가 이 재난 앞에서 가장 먼저 응답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폭염 피해가 폭방 주민과 독거노인, 이주노동자, 장애인, 에너지 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교회가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이동·배달·택배 노동자와 폭염을 피할 곳이 없는 주민들에게 쉼터와 시원한

물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NCKK는 이러한 실천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폭염 속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는 폭염 속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휴식시간과 휴게시설, 냉방시설, 식수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폭염 취약계층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쉼터와 돌봄 체계를 확대해 기후재난으로부터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니엘 최 기자

심원섭 목사, 남서울교회 제4대 담임목사 부임

남서울교회 제4대 담임목사로 심원섭 목사(사진)가 최근 부임했다.

심원섭 목사는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일반 기업인 대한항공 공에 입사해 사회경력을 쌓았다. 이후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수석으로 목



회학 석사(MDiv) 과정을 마쳤으며, 유학 길에 올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실천신학 신학석사(ThM)와 설교학 박사(PhD)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11년부터 6년간 서울 개포동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섬겼고, 2017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루이빌 새한장로교회 부목사를 거쳤다. 이어 같은

해 11월부터는 신시내티중앙장로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해 성도들을 이끌어왔다.

이번 심 목사의 청빙안은 지난 6월 28일 열린 공동의회를 통해 최종 가결된 바 있다. 당시 투표에는 총 953명의 교인이 참여했으며, 찬성 746표, 반대 177표, 무효 20표, 가결 10표로 청빙안이 가결됐다. 노형구 기자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한국성경신학회 제57차 정기논문발표회...

농업 은유·본문 구조·출애굽 모티프 집중 분석

한국성경신학회(회장 이승구) 제57차 정기논문발표회가 최근 신반포중앙교회에서 ‘호세아 주해와 설교’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박덕준 교수(합신대 구약학)가 ‘호세아의 농업 은유: 여호와와 농부, 이스라엘은 그가 경작하는 과일나무라’ △조휘 교수(아신대 구약학)가 ‘호세아서 독법: 구조를 중심으로’ △김아윤 교수(수도국제대 구약학)가 ‘애굽에서 부른 내 아들: 호세아 11장의 출애굽 모티프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농업 은유 통해 여호와와 언약 백성 관계 설명

박덕준 교수는 “호세아서가 다양한 은유를 통해 여호와와 언약 백성의 관계를 생생하고 심도 있게 보여주는 책”이라며 “특히 호세아서 1-3장은 선지자와 고엘의 상징적 결혼을 통해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결혼의 이미지로 표현하며, 4-14장에서는 자연현상과 동물, 식물, 농업과 목축업에 관한 다양한 이미지가 사용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그 가운데 여호와가 농부가 되어 과일나무를 경작하듯 언약 백성을 돌보신다는 농업 은유가 호세아서의 언약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농부와 나무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스라엘의 책임을 함께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를 의지하지 않고 바알과 강한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이러한 농업 은유는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되고 변형됐다”며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있던 농업이라는 익숙한 개념을 활용해 당시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촉구했다”고 했다.

박 교수는 “호세아서에서 언약 백성이 때로 ‘농부’로 규정되기도 한다”며 “호세아 8장 7절과 10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이 드러나며, 농업 은유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폭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한다”고 했다.

또한 “이 농업 은유는 호세아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구약에서도 여호와와 언약 백성의 관계를 농업 은유로 표현한 본문들이 있으며, 동일한 근본 은유가 확장되고 변형되면서 언약 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며 민수기 24장 5-7절, 이사야 5장 1-7절과 27장 2-6절, 시편 80편 8-16절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러한 은유는 이어진다”며 “예수는 포도원을 활용한 여러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새 언약의 백성을 설명했으며, 바울은 로마서 11장 17-24절에서 ‘접붙임’이라는 은유를 통해 언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했다. 요한 역시 포도나무 추수의 이미지를 통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특히 요한복음 15장의 ‘참

포도나무’ 비유가 호세아서의 농업 은유가 어떻게 새롭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하나님은 여전히 농부로 계시지만,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포도나무는 더 이상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새 언약의 백성은 그에게 붙어 있는 가지들로 표현된다”고 했다.

아울러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게 붙어 있는 성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갖는 본질을 보여준다”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가는 한 열매 맺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점에서 호세아의 농업 은유가 신약의 복음 이해에도 연결된다”고 전했다.

◆“호세아서 구조와 모세오경언약 배경 함께 살펴야”

조휘 교수는 ‘호세아서 독법: 구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호세아서를 어떤 방식으로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호세아서의 경우에는 저자가 의도한 구조를 확인하고 그 구조에 따라 읽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독법”이라며 “구조에 대한 이해는 호세아서를 비롯한 선지서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관점과 원리”라고 했다.

이어 “호세아서에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사건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등장하며, 특히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 호세아가 단순히 역사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모세오경에서 구성되고 이해된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며 “따라서 모세오경에서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제시되고 설명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호세아가 언급하는 출애굽 사건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언약 개념도 호세아서 독법에서 중요한 요소로 제시됐다”며 “호세아서 1-3장의 주요 주제인 언약 파기와 갱신이 모세오경의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한다. 시내산 언약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배타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했다.

그는 “호세아서는 이러한 언약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유비로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를 사용한다”며 “이를 통해 언약 관계에 발생한 문제와 그 해결을 극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 유비뿐 아니라 모세오경에 나타난 언약의 개념과 그 관계의 배타적 특성까지 함께 이해해야 호세아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결론적으로 호세아서의 적절한 독법은 호세아 선지자가 제시하는 구조와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호세아 11장 ‘심중 출애굽’ 통해 하나님의 마음 조명

김아윤 교수는 ‘애굽에서 부른 내 아들: 호세아 11장의 출애굽 모티프와 하나님의 마음을 주제로 호세아 11장에 나타난 출애굽 모티프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출애굽 모티프가 과거의 구



한국성경신학회 제57차 정기논문발표회 진행 사진. ©한국성경신학회

원 사건을 단순히 회상하는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언어”라며 “호세아 11장에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세 국면의 출애굽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어 “첫 출애굽은 하나님이 아들을 부르고 기르며 놓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며 “역전된 출애굽은 그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심판이며, 새 출애굽은 심판을 거두고 흠어진 자녀를 다시 불러 모으시는 회복의 약속”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 세 국면을 연결하는 본문으로 호세아 11장 8-9절을 주목했다. 그는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드마와 스보임의 운명을 이스라엘에게 내리기를 거부하셨으며, 그 근거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이요 사람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있다”며 “이는 출애굽기 34장 6-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호세아서 안에서 완전히 종결되지 않는다”며 “호세아 13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감춰지고 심판의 이미지가 나타나면서 회복이 약속으로 제시될 뿐 완성되지는 않는다”며 이 질문이 마태복음 2장 15절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호세아 11장은 첫 출애굽을 역전된 출애굽과 새 출애굽에 연결하면서 첫 출애굽을 장차 반복될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한다”며 “마태는 이 흐름을 이어받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예수에게 적용한다”고 했다.

이어 “호세아의 아들과 마태복음의 아들 예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호세아의 아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순종하지 않아 심판받았고, 그럼에도 회복될 자로 제시됐다. 반면 예수는 애굽에서 나와 완전히 순종하며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완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죄 있는 이스라엘과 세상을 하나님께 회복시키기 위해 그 심판을 대신 감당한다”며 “이를 통해 마태가 예수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신의 삶 안에 요약하는 분으로 그린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지점까지 되짚어 올라가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사명을 순종으로 완수하는 아들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호세아 11장이 제시하는 오늘의 설교적 의미

김 교수는 호세아 11장의 의미를 오늘의 강단에서 어떻게 전할 것인지도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데서 신앙이 시작



(왼쪽부터) 박덕준 교수, 조휘 교수, 김아윤 교수 ©한국성경신학회

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 “호세아 11장 1-4절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행위였으며,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 손길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며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며 풍요와 다산을 추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알이 준 것으로 착각했다”고 했다.

더불어 “하나님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나님이 갠게 하고 안으며 고치신 손길을 알아보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값을 치르는 사랑이라는 점”이라며 “호세아 11장을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음 아파하신다’는 위로로만 전해서는 본문

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반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며, 그 심판을 통과한 뒤 회복으로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긍휼이 인간의 회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이끄시는 데서 시작된다”며 “따라서 교회가 믿음을 떠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으며, 실패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을 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셋째는 소망을 잃은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아들로 불러내셨으며, 교회 역시 죄의 종살이에서 불러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날에도 세상의 가치와 제도,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속박으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묵인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세아 11장의 사자의 포효 역시 죄인을 흠여놓는 소리가 아니라 흠어진 자녀를 집으로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따라서 강단은 경고와 심판만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 안식까지 회중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호세아 11장이 포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다시 불러 모아 안식하게 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진다”며 “하나님은 깨어난 영혼을 두려움 속에 버려두지 않고 종살이의 집에서 불러내어 아버지의 집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이다. 회복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망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신응철 교수, 한국해석학회 제17대 회장 선출

2026년 8월부터 2년간 임기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원장 박삼열) 신응철 교수(사진)가 한국해석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 교수는 최근 미래판 204호에서 열린 한국해석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2년이다.

신 교수는 문화해석학을 연구하는 철학자로, 본교 철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가다머 해석학과 에른스트 카시러의 문화철학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아왔으며, 독일 근현대철학을 전공했다. 그동안 문화철학과 해석학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활동을 이어온 신 교수는 『카시러의 문화철학』, 『기독교 문화학이란 무엇인가』, 『현대 문화해석학』 등을 비롯해 모두 15권의 단독 저서를 발표

했다. 등재학술지 논문도 80여 편을 발표하며 학술적 연구 성과를 쌓아왔다. 교육 현장에서 대림대와 경성대, 동아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기독교철학회 회장과 한국인간과자연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교수는 한국해석학회 회장 선출과 함께 한국현대유렵철학회 제6대 공동회장으로도 선출됐다. 한국현대유렵철학회는 철학 분야의 학술단체로, 통합 등재 학술지인 『현대유렵철학연구』를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두 학회의 주요 직책을 맡게 된 신 교수는 앞으로 해석학과 현대 유렵철학을 비롯한 철학 분야의 학술 연구와 담론 형성에 힘을 예정이다. 장지동 기자



“광복절… 화해와 사랑, 평화의 사명 감당을”

김정석 감독회장 제81주년 광복절 메시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사진)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화해와 사랑,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제81회 광복절을 맞이하여 자유와 평화의 빛을 비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만 디아스포라 한인 동포들



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81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제의 어두운 억압에서 벗어나 마침내 ‘빛’을 되찾았다”며 “광복(光復)은 단순히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인류 보편의 자유가 승리한 역사적 선언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 이면에는 신앙을 애국으로 삼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쳤던 선조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고 했다.

김 감독은 감리교회의 독립운동 참여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감리교회는 민족의 고난 한복판에서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며 “삼일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9명의 지도자를 비롯해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다. 그들이 보여준 애국애족의 정신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어나가야 할 가장 자랑스러운 신앙적 유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념과 세대, 계층 간 갈등, 저출생과 양극화, 도덕적 가치관의 혼란, 남북 대립 심화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감리교회가 감당할 세 가지 사회적 책임을 제시했다. 김 감독은 첫째 과제로 “갈등을 치유하는 ‘화해의 메신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열과 반목이 가득한 사회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화평을 실천하는데 힘을 것이다. 대립과 혐오를 멈추고 서로를 용납하며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감리교회가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겠다”며 “진정한 광복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이 함께 자유를 누릴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돌봄 중심의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고립 청년 등 우리 주변의 아파하는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는 일에 힘을 것”이라고 했다. 셋째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무릎이 될 것’이라며 “주권 회복을 넘어 우리 민족의 진정한 광복은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루는 통일의 날에 완성된다고 믿는다. 그 신념으로 감리교회는 평

화 정착과 북한 동포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제단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끝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며 “81년 전 신앙 선조들이 기도의 등불을 밝혀 민족의 어둠을 몰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에 희망의 역사를 새로 써가도록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우리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원로 목회자들의 기도, 한국교회 뿌리 지키는 마지막 보루”

예장합동총회, 원목협 수요일예배 참석해 삼계탕 대접하며 감사와 존경 전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서기원 목사)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원로 목회자들을 위한 섬김의 자리를 마련했다. 예장 합동총회는 지난 5일 한국원로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강진문 목사·이하 원목협)가 주관하는 수요일예배에 참석해 교계 원로 목회자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기를 기원했다. 이날 서기원 총회장은 원로 목회자들

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 총회장은 “평소 존경하던 원로 목회자분들에게 부족하게나마 삼계탕으로 점심을 섬길 수 있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원로 목회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가 없었다면 현재의 한국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생을 무릎으로 교회를 지켜 주신 원로 목회자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원로

목회자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다. 이에 원목협 사무총장 이준영 목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교계를 위해 헌신하며, 특별히 원목협을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원로 목회자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협회 또한 총회의 발전과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고 화답했다. 한국원로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강진문 목사는 원로 목회자들의 영적 역할을

강조했다. 강 목사는 “원로 목회자들의 기도는 한국교회의 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어떤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본질을 붙드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요일예배는 생명과평안교회에서 진행됐다. 강진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황정일 목사의 기도와 살롬찬양대의 찬양으로 이어졌다. 설교는 김종화 목사가 맡았다. 김 목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성을 갖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의 본질적인 우선성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원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귀감이 되는 영성을 끊임없이 회복하고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로 목회자들이 영적 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며, 한국원로목회자협의회와 사명 감당을 위해서도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다. 예배는 이준영 목사의 광고에 이어 염



예장합동총회 관계자들이 한국원로목회자협의회 주관 수요일예배에 참석해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섬겼다. ©예장합동총회



원목협 사무총장 이준영 목사. ©예장합동총회

태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한편, 한국원로목회자협의회는 매주 수요일예배를 개최하며 원로 목회자들 간의 영적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참례된 한국교회의 정체성 회복과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장지동 기자

다니엘기도회, ‘2026 미래교회 전략 콘퍼런스’ 개최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의 미래 목회 방향을 조망하는 대규모 전략 콘퍼런스가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다.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은호 목사)가 주최하고 경기남부지역 참여교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2026 미래교회 전략 콘퍼런스’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순복음교회(이요한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전례 없는 사회기술적 대변혁 속에서 한국교회가 직면한 도전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실질적인 목회 전략과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30분간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로 문을 연다. 이어 2부 순서에서는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가 단상에 올라 ‘다니엘 프로젝트를 주제로 핵심 메시지를 전파한다. 계속해서 3부에서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 최윤식 목사가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의 정체성 회복과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장지동 기자

‘AI시대, 교회에 던지는 11가지 도전’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을 펼친다. 참가자들은 AI 기술이 가져올 목회 현장의 급격한 변화를 예측하고,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면서도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공식 일정인 모두 마무리된 오후 1시부터는 참석자 간의 오찬과 교제 시간이 마련된다. 참가 신청 및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경기남부지역 연합회 담당자인 신동홍 목사(010-5548-0006) 또는 한반석 목사(010-8618-189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노형구 기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태백시의회에 ‘청정시민조례’ 제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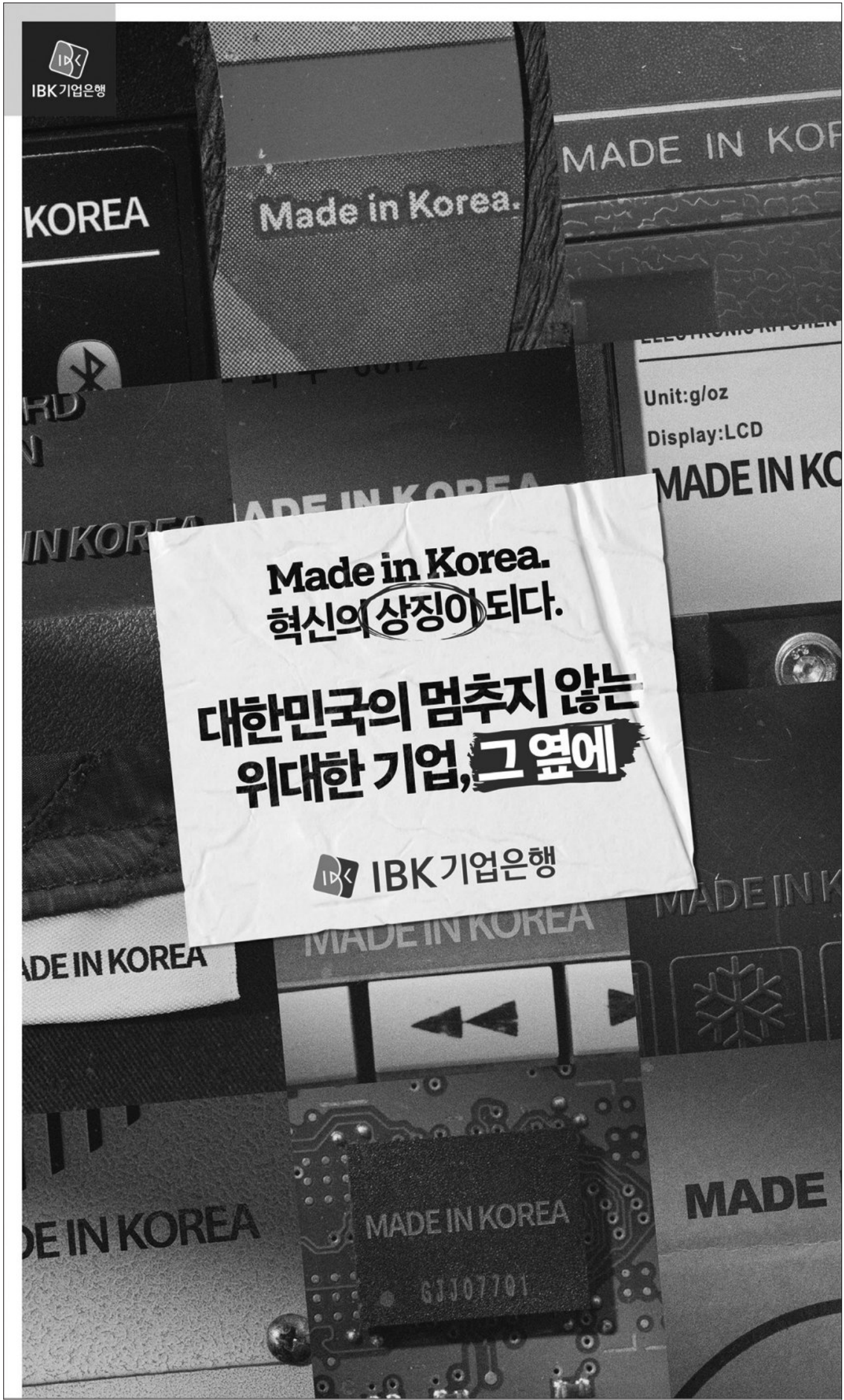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정정책협의회 상임대표)가 태백시의회를 방문해 ‘태백시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청정 도시’를 위한 ‘시민조례안’ 제정을 제안했다. 김 목사는 7월 29일 태백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종욱 목사(장성감리교회)와 함께 태백시의회를 찾아 이경욱 부의장과 정연태 시의원을 만나 조례안을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김 목사는 태백의 자연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언급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한편 깨끗하고 행복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한 조례안에는 청정 자연환경 보호와 금연, 도박알고을 등 중독 예방,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시민들의 자발적인 출산·돌봄운동, 청소년 보호, 준법정신 실천 등의 내용을 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합을 위해 ‘시민의 종’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목사는 매일 오후 1시 ‘시민의 종’을 1분간 타종하고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의 안녕과 건강, 행복한 가정, 쾌적하고 더불어 잘 사는 태백시를 위해 기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목사는 “태백이 자발적인 시민실천 운동을 통해 청정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면 태백시 정주 인구나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른 생활복지향상은 물론 경제발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조례안과 함께 신안군과 서울 성북구의 금연조례 등을 전달하며 태백시의회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경욱 부의장은 “태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민조례 제정 제안을 해준 것



(왼쪽부터) 정종욱 목사, 김철영 목사, 이경욱 부의장, 정연태 의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을 감사하다”며 시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태 시의원도 “태백 시민이 행복하고, 태백시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욱 목사는 “시민조례가 제정되어 종교계를 포함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태백을 만드는 일에 나선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할렐루야대회 둘째 날 집회 “상황 뛰어넘는 믿음”

마크 최 목사 “기도가 상황 뛰어넘고, 순종할 때 기적 일어나...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감사 있어야”

‘2026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둘째 날 집회가 8일 오후 7시30분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형 목사) 소속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뉴욕 일대 한인 밀집지역에서 거리전도를 펼친 데 이어, 저녁에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 찬양과 말씀으로 대회의 열기를 이어갔다.

둘째 날 강사로 나선 마크 최 목사(뉴저지 온누리교회)는 본문 누가복음 17장 11-19절에 등장하는 열 명의 나병환자를 통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강조했다. 최 목사는 이러한 삶의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세 가지를 제시하며 성도들에게 상황에 매몰되기 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했다.

이날 집회는 유상열 목사(리빙스톤교회)의 사회로 심형진 목사가 경배와 찬양을 인도했으며, 신두현 목사(뉴욕천성장로교회)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박해웅 장로가 성경을 봉독한 뒤 뉴욕장로성가단(New York Elders Choir)이 ‘Majesty’를 찬양했다.

허연형 회장은 감사 소개에서 최 목사가 중학교 시절 부모를 따라 뉴욕으로 이민해 현재의 프라미스교회 전신인 순복음뉴욕교회에서 신앙생활과 사역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국과 맨하튼을 거쳐 현재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1세와 다음세대를 아우르는 다세대 사역과 한국어영어를 넘나드는 다언어 사역,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문화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목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할렐루야대회 강단에 올랐다. 허 회장은 “역대 할렐루야대회 강사 가운데 2년 연속으로 섬기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 목사를 소개했다.

◆“우리만의 할렐루야 외침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품는 것 함께 가야”

최 목사는 설교에 앞서 ‘할렐루야 복음화대회’라는 명칭 자체가 이번 집회의 두 가지 성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할렐루야’는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백”이라며 “동시에 ‘복음화대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 진행된 거리전도를 언급하며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는 동시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열 명의 나병환자들의 육체적 고통보다 그들이 처했던 외로움에 주목했다. 당시 나병환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가족과 친구를 자유롭게 만날 수도,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도 없었다.

그는 “우리 삶에서도 어려운 상황과 믿음이 정면으로 만나는 때가 있다”며 “가정과 일터, 관계와 재정, 건강과 신앙에서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뉴저지 성전은 한 성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

최 목사가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이었다.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장면을 들어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데도 기도하지 않고 사람과 방법만 먼저 찾는 때가 있다”며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기도”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강민수 목사의 설교를 상기시키며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며 “이번 할렐루야대회를 통해 끊어진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신이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개척할 당시 유대인 회당을 빌려 예배드리다가 한 성도의 제안으로 시작돼 함께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당시 사진조차 가능성을 크게 믿지 못했지만 바로 다음 날 랍비로부터 회당을 교회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기도하고 응답이 오면 오히려 기도한 우리가 가장 놀랄 때가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올 수 있었던 데는 쌓여 온 기도가 있었다. 기도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나은 뒤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들에게 먼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후 이들이 그 말씀을 따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에 대해 최 목사는 “다 나은 다음에 가는 것은 순종



2026 할렐루야대회 둘째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다함께 손을 들어 찬양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이 아니다. 아직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떼는 것이 순종”이라며 “기적은 가만히 앉아 기다릴 때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1885년 한국에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복음이 오늘의 한국교회까지 전해지는 과정에도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기도해 보겠다’는 말로 미룰 때가 많다”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 자리가 없어 돌아가던 두 소년을 한 안내원이 다시 불러 앞자리에 앉혔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훗날 빌리 그래함이 됐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어떤 열매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크고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며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일어나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이라고 말했다.

◆“열 명이 고침 받았지만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명”

마지막으로 최 목사가 강조한 것은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이었다.

열 명의 나병환자는 모두 예수께 간구했고 모두 말씀에 순종했으며 모두 병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최 목사는 예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장면에 대해 단순한 섭섭함보다 아홉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홉 명은 육신의 병 고침을 받는 데서 끝났지만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는 병 고침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살아 있는 것도, 일터가 있는 것도, 교회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며 “하나님께서 계속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데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목사는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아서 안 된다”며 “이번 할렐루야대회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 말미에는 시각장애에도 평생 수많은 찬송시를 남긴 패니 크로스비(Fanny Crosby)의 삶을 소개했다. 이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쁨,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운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싶은 찬송을 하나씩 선택하도록 했다.

그는 감사가 일회적인 표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감사는 ‘뎡스기빙(Thanksgiving)’만이 아니라 ‘뎡스리빙(Thanks-living)’, 곧 감사의 삶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설교를 마쳤다.

이어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을 찬양한 뒤 기도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

는 믿음을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했다.

최 목사는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순종하며 이겨내게 해 달라”고 기도한 뒤 “불평과 원망이 떠나고 감사가 회복되게 해 달라. 응답해 주셔도 감사하고 응답이 아직 없어도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설교 후에는 케리그마남성중창단이 ‘항해자’와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을 부런 특송했다. 조동현 장로(전 이사장)가 헌금기도를 드렸고 김명옥 목사(총무)의 광고 후 김용길 신부(증경회장)의 축도로 둘째 날 집회를 마쳤다.

김 목사는 “최근에 이런 집회가 없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은혜를 주



2026 할렐루야대회 둘째날 집회에서 마크 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셨다”며 참석한 성도들과 찬양으로 섬긴 단체들에 감사를 전했다. 또 10일부터 11일까지 프라미스교회에서 진행되는 목회

자 AI 활용 세미나를 소개하며 할렐루야대회 현장에서 계속 추가 등록을 받는다고 알렸다.

김대원 기자



1.5세로 구성된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뉴욕장로성가단이 합창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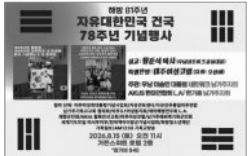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ac AEKYUNG

LA 한인사회, 해방 81주년 맞아 ‘건국 정신’ 조명한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알지만 한국의 초대 대통령은 몰라”

우남 네트워크 USA 창립식… 차세대와 탈북민 참여해 역사·자유 가치 되새겨



해방 81주년과 자유대한민국 건국 7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는 8월 15일(토) 오전 11시 가든 스위트 호텔 2층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우남 이승만 네트워크 USA, AKUS 한미연합회 LA,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지회가 주관하며,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우남 이승만 네트워크 USA’ 창립식을 겸해 진행된다. ‘우남 이승만 네트워크’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업적을 기념하고 관련 단체들을 네

트워크해 온 단체다. 이번에 미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우남 네트워크 USA가 LA를 중심으로 출범한다.

이번 행사는 차세대에게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우남 이승만 네트워크 USA 회장 조선헌 장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젊은 세대가 많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음 세대에 알려주고 싶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은 젊은 시절 한성감옥에서 수년간 복역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학업을 이어갔으며,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

국 과정을 이끌었다. 주최측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세우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한미동맹의 기틀을 마련한 점 등을 이승만 대통령의 주요 업적으로 꼽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토리텔링과 영상 자료를 통해 차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할 예정이다. 2세들이 제작한 영상이 상영된다. 2세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의 역사와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을 영상에 담았다.

행사는 ‘감사의 예배와 기념식’, ‘남북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이어진다. 이번 행사에는 차세대와 탈북민들도 함께 참



(왼쪽부터) 박세현 목사(한미연합회 AKUS 사무총장), 조선헌 회장(우남 네트워크 U.S.A), 노명수(우남 네트워크 USA 이사장), 김영구 회장(AKUS 한미연합회 남가주지회) ©주디 한 기자

여해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승만 대통령이 생전에 자유통일을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남북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노명수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후세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역사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세워가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포들이 함께해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가치를 되새기고 함께 지켜나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설교는 황준석 목사(우남 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맡는다. 황牧사는 한국에서 우남 네트워크 관련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특별찬양 순서에는 미주여성교람(지휘 오상에 권사)이 참여한다. 미주여성교람은

광복 및 건국 관련 행사에 참여해 찬양으로 함께해 왔으며, 이번에도 특별찬양으로 행사를 섬긴다.

차세대들을 위해 영어 진행과 통역도 준비된다. 한인 2세와 3세를 비롯한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자유의 의미를 배우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한편 대한민국 건국을 주제로 한 별도의 강연회도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이어진다. 오는 8월 20일 오전 11시 라구나 우즈 빌리지의 클럽하우스 7(Clubhouse 7)에서 열리는 강연회에는 황준석 목사가 강사로 나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에 대해 설명한다. 주최 측은 지역 한인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다시 알리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최 측은 “해방과 건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에 동포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디 한 기자

다음 세대 선교 길 연 미주 기아대책

청년기대봉사단 1기 4명 집중훈련 수료

청소년 16명 ‘Youth Club’ 출범…해외 파송·구호 참여 확대

희망진구 미주 기아대책(KAFHI)이 제1기 청년기대봉사단 집중훈련을 마치고 청소년 16명이 참여하는 ‘Youth Club’을 출범시켰다. 청년 선교 인재의 해외 파견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의 국제구호 참여를 넓히며 다음 세대 사역을 본격화했다.

제1기 청년기대봉사단에는 애틀랜타 지역 청년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6년 8월 3일부터 7일까지 애틀랜타 프라미스 교회에서 선교 현장과 국제개발 사역에 필요한 집중 교육을 받고 수료했다.

청년기대봉사단은 기아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 각지의 이웃에게 복음과 나눔을 전하고 현지 공동체의 자립을 돕기 위해 미주 기아대책이 양성하는 청년 선교·봉사 프로그램이다. 미주 지역 청년들이 해외 선교와 국제개발 사업, NGO 활동을 함께 경험하도록 마련됐다.

훈련을 마친 청년 가운데 파송을 희망하는 단원은 9월 이후 에파도르와 방글라데시, 우간다 등 미주 기아대책의 주요 해외 사역지로 파견될 예정이다. 파송 국가와 일정은 단원과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청년기대봉사단, 9월 이후 해외 선

교개발 현장으로

파견 단원들은 현지 아동 지원과 지역 개발 사업을 비롯해 교육·돌봄·문화 프로그램, 행정 지원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지 공동체와 함께하는 선교·봉사 활동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도 수행하게 된다.

미주 기아대책은 단원들이 현장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공식 모집 안내에 따르면 훈련비와 비자 발급비, 왕복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건강검진비와 일부 예방접종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지에서는 거주비를 포함한 목표 생활비의 약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훈련에는 랜디 호그(Dr. Randy Hoag) 국제기아대책 총재와 유원식 미주 기아대책 회장, 정승호 사무총장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강사진은 해외 선교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비전을 나누고 국제개발 사역의 방향과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자세를 전했다.

미주 기아대책은 이번 프로그램을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선교 인재를 발굴하는 과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현장 사역을 통해 국제

개발과 선교의 접점을 경험하고 향후 교회와 사회에서 역할을 이어가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 8월 8일 선교컨퍼런스… 다음 세대 역할 공유

집중훈련 다음 날인 8월 8일에는 프라미스교회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의 비전을 주제로 선교컨퍼런스가 열렸다. 랜디 호그 총재가 강연자로 나섰고 애틀랜타 지역 목회자와 성도, 평신도 등이 참석해 세계 선교의 비전과 다음 세대의 역할을 공유했다.

미주 기아대책은 컨퍼런스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제1기 청년기대봉사단의 훈련 성과와 해외 파송 계획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새로 출범한 Youth Club의 활동 방향과 지역 교회·한인사회와의 협력 방안도 설명했다.

유원식 회장은 제1기 청년기대봉사단과 Youth Club의 출범이 단순한 세대 참여를 넘어, 지구촌 이웃에게 ‘떡과 복음’을 함께 전할 다음 세대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교컨퍼런스를 계기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확산되기를 기대했다.

미주 기아대책 동남부 후원 이사장 남병진 장로는 육체적·영적 굶주림을 함께 돌보는 것이 기아대책 사역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이 교회와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교회와 한인사회의 후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소년 16명 Youth Club 출범… 홍보모금 활동 참여

이번 행사에서는 애틀랜타 지역 청소년 16명으로 구성된 Youth Club이 공식 출범했다. 회원들은 자연재해와 전쟁,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 각지 이웃들의 현실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된다.

Youth Club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구호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국제구호와 선교를 배우는 데 머물지 않고 캠페인과 나눔 활동을 통해 직접 실천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미주 기아대책 동남부 후원회 이창환 회장은 청년기대봉사단과 Youth Club의 출범을 통해 젊은 세대가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나눔과 선교에 참여하게 된 점에 의미를 뒀다. 동남부 후원회도 청년과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주 기아대책은 앞으로 청년기대봉사단과 Youth Club을 두 축으로 삼아 다음 세대가 국제구호와 해외 선교 현장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교회와 한인사회가 청년·청소년 선교 인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은혜 기자

ANC 온누리교회 인싱크 대학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등록 8월 9일, 16일, 23일, 27일

ANC 온누리교회 인싱크 대학이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가을 학기는 8월 27일(목)부터 11월 10일까지 운영되며, 등록은 8월 9일, 16일, 23일, 27일까지 매 주일 본당과 카페 사이에 있는 페리온에서 이루어진다.

학비는 학기당 \$100이며, 성경 강해, 기도 강해, 예배의학, 한방뜸, 힐링톡, 스

마트폰 AI, 레크레이션, 바둑, 펜물, 합창, 미술, 드럼(초·중), 장구, 우쿨렐레(초·중), 기타, 리코더(초·중), 피아노(중), 키보드(초), 라인댄스, 찬양 라인 워십, 고전 무용, 탁구, 베드민턴, 골프, 핸드벨, 의료영양, 영어성경, 색소폰(초), 색소폰(중), 퍼커션(난타), 코어 근력반, 바이오그라피(자서전), 캘리그래피 강좌가 개설된다.

문의: 이부영 간사(818-834-7000)

김민선 기자



ANC 인싱크 대학(학감 이진형 목사) 봄학기 종강식이 진행됐다.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탄소중립 선도 도시

보령

- 탄소중립 에너지 기회발전 특구 선정
- 지방소멸기금 투자 우수지역 선정

국제앰네스티 英지부, 기독교 단체 ‘반(反)권리’ 규정 보고서 사과

“애초에 발간되지 말았어야”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Amnesty International UK)가 수십 개의 기독교 단체와 생명운동 단체, 성별 기반 권리 옹호 단체를 ‘반(反)권리(anti-rights)’ 단체로 규정한 보고서를 발간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영국에서 커져가는 반권리 운동(A growing threat: the anti-rights movement in the UK)’이라는 제목의 브리핑 보고서가 “애초에 발간되지 말았어야 했으며”, 연구와 증거 검토, 편집 관리 등 내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오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에 있다”고 인정했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영국에서 여성과 LGBT+ 권리 보호를 후퇴시키려는 ‘반권리 운동’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117개 단체를 명단에 포함시켰다.

명단에는 영국복음주의연맹(Evangelical Alliance),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 잉글랜드-웨일스 가톨릭주교회의(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England and Wales), 기독교의료인 협회(Christian Medical Fellowship), 크리스천인스티튜트(The Christian Institute), 크리스천스 인 파를리먼트(Christians in Parliament), CARE, 프리미어(Premier), 태아생명보호협회(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Unborn Children), 빌리그레



©앰네스티

함전도협회 영국지부(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UK)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위기임신상담센터와 여성 전용 공간 보호를 주장하는 성별 기반 권리 옹호 단체들, 그리고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이 설립한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기관 ‘베이라스 플래스(Beira’s Place)’도 명단에 올랐다. 반면 무슬림 단체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영국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 명단에 오른 단체들의 자선단체 지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으며, 영국 국민보건 서비스(NHS)가 여성들에게 위기임신상담센터를

안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명단에 포함된 단체들과 여성 인권 운동가들, 특히 J.K. 롤링 등의 강한 반발을 받은 뒤 공개 48시간 만에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해당 브리핑이 통상적인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게시됐으며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보고서가 발간된 경위에 대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국제앰네스티는 독립적인 외부 검토도 별도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식 사과문에서 해당 문서는

발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며, 재발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는 명단에 포함된 모든 단체의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반권리’라는 표현으로 규정된 데 대해 제기한 우려를 인정한다”며 “분명히 말하자면 이러한 규정은 국제앰네스티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표현이 포함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베이라스 플래스와 다른 성별 기반 권리 옹호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집단적으로 ‘반권리’ 단체로 분류해서는 안 됐으며 별도의 사과를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함께 과거 ‘눈덩이처럼(Like a Snowball)’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했던 또 다른 브리핑도 삭제했다. 해당 문서는 다양한 단체를 유사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성별 기반 권리 옹호 입장을 ‘트랜스혐오(transphobic)’로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사과는 명단에 포함된 11개 기독교 자선단체가 영국 자선위원회에 공개 토론에 참여할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뒤이어 나왔다.

이들 단체는 자선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성격이 서로 다른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게으른 일반화(lazy generalisation)”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신들은 “수세기 동안 민주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자유는 기독교 사상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고 국제 인권 체계에도 명시돼 있다”며 자신들을 ‘반권리’ 단체로 규정한 것을 강하게 반박했다.

보고서가 처음 공개됐을 당시 크리스천인스티튜트의 시아란 켈리(Ciarán Kelly) 대표는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 보호라는 창립 정신에서 너무 멀리 벗어났다”며 “이제는 인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국제앰네스티의 인권 개념에는 태아의 생명권, 성매매로 착취당하는 여성의 권리, 그리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복음주의연맹의 피터 리나스(Peter Lynas) 영국 대표도 “국제앰네스티가 권리 보호보다 최신 이념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프리미어의 최고경영자(CEO) 케빈 베넷(Kevin Bennett)은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발간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실제 입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보고서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신중하게 의견을 제시하려는 단체와 개인을 오히려 비난함으로써 설립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

이미경 기자

“미국인 54%,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최근 조사보다 지지율 낮아

미국인들의 동성결혼 지지율이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다른 여론조사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던 동성결혼 지지율이 여러 조사에서 점차 하락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지난 29일 (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1,559명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4%는 동성결혼이 합법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32%는 합법화에 반대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3.3%포인트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을 통해 주(州) 정부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이후 2022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연방 차원에서 이를 법제화한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에 서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은 과반을 차지했고 반대보다도 크게 높았지만, 다른 최근 조사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앞서 공공종교연구소(PRR)가 올해 발표한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65%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기록한 최고치인 69%보다는 낮은 수치다.

지난 6월 발표된 갤럽(Gallup)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동성결혼을 지지했고, 32%는 반대했다. 이는 2022년과 2023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71%보다 하락한 결과였다.

미국 보수 기독교 단체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회장 토니 퍼킨스(Tony Perkins)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 기고문에서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배경을 분석했다.

그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할 당시에는 헌신적인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는 것뿐이며 다른 것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인들에게 설명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퍼킨스는 대도시에서 열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노출과 성적 표현, 기업과 대학, 프로 스포츠 단체에서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지하도록 압박하는 문화,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부모 없이 태어나도록 하는 상업적 대리모 산업의 확대 등을 동성결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의료 시술과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전용 공간과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정책 역시 여론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이 남성과 여성의 상호보완적 결합이라는 개념에서 분리되면 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중요인지, 왜 남성과 여성이 다른 존재인지, 왜 아이들이 부모 모두를 누릴 권리가 있는지를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의 최근 조사들은 다른 기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동성결혼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올해 5월 조사에서는 찬성 51%, 반대 34%를 기록했으며, 2025년 1월과 3월, 12월 조사에서는 찬성률이 5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기자



©Unsplash



**의 성 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

에서 만들어갑니다.

멕시코 성서공회 창립 60주년 맞아 3억 7400만 부 배포 위업 달성

원주민어 번역부터 디지털 혁신까지 기독교 선교 역사 새 이정표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멕시코 성서공회(SBM)가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아 그동안 3억 7400만 부 이상의 성경 및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현지 기독교 선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월 1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1966년 설립돼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에 소속된 멕시코 성서공회는 지난 60년 동안 멕시코 전역의 교회 및 기독교 단체와 협력해 성경 번역과 제작 및 배포 사업을 전개해 왔다. 하이메 로페스 바스케스 멕시코 성서공회 총무는 모든 멕시코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체의 핵심 사명이라며 전체 복음주의 교회가 연합해 성경적 가치로 국가의 흐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멕시코 성서공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방식의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

다. 바스케스 총무는 청년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전하는 것이 교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회 측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원을 적극 도입해 젊은 세대의 성경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종이책 접근이 어려운 소외 계층을 위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오디오 성경을 보급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성경 제작에도 앞장서고 있다.

◆원주민어 성경 번역 통한 기독교 선교 지경 확대

CDI는 과거 멕시코 내 개신교의 입지는 좁았으나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정보원(INEGI)의 최근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사회의 종교적 다양성과 복음주의 교회의 비중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현재 멕시코 내부부에 공식

등록된 종교 단체는 1만 600여 개에 달하며 복음 전파와 새 신자 양육을 위한 기독교 성경 자원에 대한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 성서공회는 도시 지역을 넘어 소수 원주민 공동체를 위한 맞춤형 성경 번역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원주민 언어 그룹만 68개에 달하는 가운데 언어학자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협력을 통해 성경을 원주민 모국어로 번역하는 고된 작업을 이어왔다. 수백만 명의 원주민이 여전히 자국어 성경을 갖지 못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마사텍 원주민 번역가인 베니토 페르난데스 피게로아는 18년간의 기독교 성경 번역 사업을 통해 이슈카틀란 지역 사회 주민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현재 멕시코 성서공회는 마야어, 톨어, 초칠어, 첼탈어, 미헤어 등 8개의 주요 원주민 언어



올해 멕시코성서공회(Bible Society of Mexico)는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열렸다. ©Photo: Ommar Ayala

로 성경을 번역해 배포하며 복음 전파는 물론 소수 민족의 고유 언어와 문화 보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3억 7400만 부 배포 달성 및 60주

년 기념행사 전개

에프라인 아마로 멕시코 성서공회 배포 책임자는 지난 60년 동안 전국 13개 도시에 서비스 및 배포 센터를 구축해 총

3억 7400만 부 이상의 기독교 성경 관련 자료를 보급했다고 발표했다. 공회는 단순한 성경 배포를 넘어 문맹 퇴치 운동을 비롯해 장애인 성경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 등 다방면에서 멕시코 사회 내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

크리스 에지토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효과성 부문 전무 이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멕시코 전역에 말씀의 빛이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멕시코 성서공회는 배포된 성경의 숫자를 넘어 말씀으로 변화된 삶에 사역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멕시코 성서공회는 올 한 해 동안 사역 60주년을 기념해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 기독교 선교 콘퍼런스, 역사 기록 전시회, 매일 성경 읽기 독려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멕시코 전역에 말씀 부흥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다니엘 최 기자

수단 무장단체, 피랍 기독교 지도자 2명 무사 석방

티아 목사 등 억류 풀려나… 현지 교계 “무력 충돌 중단 및 평화 촉구”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프리카 수단 남코르도판주 누바 산맥 일대에서 무장 단체에 납치됐던 기독교 지도자 2명이 무사히 석방됐다고 8월 1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수단 남코르도판주 헤이반 지역의 수단 그리스도의 교회(SCOC) 소속 지도자인 야콥 이브라힘 티아 목사와 자카리아 술리만 자나가 각각 지난 7월 28일과 8월 1일에 풀려났다. 현지 관계자들은 수단 인민해방군 북부(SPLA-N)에서 이탈한 무장 반군 세력을 이번 납치의 배후로 지목했으나, 구체적인 납치 동기나 석방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7월 23일에 피랍됐던 티아 목사는 함께 억류됐던 17세와 20세의 두 아들, 15세 조카, 그리고 지역 가톨릭 신부의 형제인 다니엘 이브라힘 티아 등 일가족과 함께 석방됐다. 자나 지도자 역시 티아 목사 피랍 며칠 뒤인 7월 31일 오전 납치됐다가 무사히 귀환했다.

석방 후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만난 티아 목사는 무장 분파 간의 무력 충돌을 강하게 규탄했다. 지역 교회 지도자들의

중재로 성사된 인계 회의를 거쳐 풀려난 그는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 정치 지도자들에게 폭력 중단과 평화 정착을 촉구했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수단 정부가 해당 분쟁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납치 사건은 최근 누바 산맥 일대에서 급증하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 표적 테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7월 24일 헤이반 다비 지역에서는 성공회 소속 아델 이드리스 종굴 목사가 SPLA-N 분파 무장 단체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6월 19일에도 카우다 지역 가톨릭 성당에서 신부와 경비원이 동일 무장 단체에 의해 살해된 바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언론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으나, 무력 충돌로 인해 여성과 노약자를 중심으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단 중앙 정부와 대립해 온 누바 산맥은 당초 2023년 4월 발발한 수단 내전의 주요 격전지가 아니었으나, SPLA-N이 신속지원군(RSF)과 연합해 수단 정부군(SAF)에 맞서면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SPLA-N에 반발하는 여



©ChatGPT

러 무장 정파가 난립하며 민간인 사상자가 늘고 있다.

특히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SAF와 RSF 양측은 피난길에 오른 기독교인들을 상대 진영의 조력자로 간주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93%가 무슬림인 수단에서 기독교인은 2.3%에 불과해 내전 상황 속에서 심각한 생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수단의 종교적 자유는 2021년 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쿠데타 이후 권력을 잡은 부르한 장군과 다갈로 사령관의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수만 명이 사망하고 1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즈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수단은 세계 4위를 기록하며 가혹한 종교 탄압 국가로 지목됐다.

다니엘 최 기자

아르메니아 101m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 추진

사업가 차루키안 주도 브라질 동상 압도하는 규모 수도 예레반서 관측 가능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1m 규모의 거대 예수 그리스도 동상 건립이 추진된다고 8월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르메니아의 유력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가리크 차루키안은 최근 영국 가디언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조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수상을 세울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기독교가 아르메니아의 새로운 국가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이번엔 건립되는 조각상이 아르메니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명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발 2500m 하티스 산 정상에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

이번엔 기획된 거대 예수상은 전체 높이가 101m에 달하는 초대형 구조물이다. 이는 받침대를 포함해 총 높이 38m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구세주 그리스도상을 크게 웃도는 압도적인 규모

를 자랑한다.

이 예수상은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해발고도 2500m의 하티스 산 정상에 세워진다. 지난 2022년부터 산발적으로 기초 제작 작업이 진행되어 온 이 조각상은 조만간 산 정상으로 운반되어 본격적인 조립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르메니아의 지리적 특성상 조각상이 완공되면 수도 예레반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르메니아 기독교 랜드마크 조성 및 차루키안의 정치적 행보

차루키안은 아르메니아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라는 역사적 사실을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인터뷰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세상에서 가장 큰 예수상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예수상 프로젝트와 더불어 초대형 규모의 노아의 방주 건립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대 건축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차루키안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도박과 주류 및 광산업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신흥 재벌이다. 그는 최근 치러진 아르메니아 총선에 출마했으나 4%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정치적 입지 확보에는 고전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예수상과 노아의 방주 건립을 신성한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뚜렷한 개인적 포부를 드러냈다. 차루키안은 두 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깊이 새기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사후에도 전 세계가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최 기자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광역접근성 우수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정부, 北 상대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 대북정책 변화 속 ‘모호한 대응’

통일부 “소 취하는 검토 안 해”… 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소송 후속조치 고심

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통일부는 소송 취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북정책 기조가 달라진 상황에서 소송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원래 12일이 선고기일인데 요청해서 9월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처음이라는 점과 판결 이후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국자는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란 게 처음 있는 사례”라며 “판결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할 것도 있고, 실무 차원에서 수정할 것도 있어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소 취하는 검토 안 해… 후속 방안 아직

정부는 소송 자체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소 취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시점에서 소 취하를 검토하

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을 상대로 실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판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선고 연기 요청 역시 승소 이후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배상 책임을 요구할지, 소송의 법적·정책적 의미를 어떻게 이어갈지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TV 화면 캡처

성공업지구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 간 상시적인 연락과 협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었다.

◆윤석열 정부서 첫 대북 손배소… 447억원 청구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로 약 447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사가 처음이었다.

북한 당국자가 국내 법정에 출석하거나 판결 이후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당시 정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성을 앞세워 소송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이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해당 소송을 계속 유지할지를 두고도 관측이 엇갈렸다.

정부가 이번에 소송 취하 대신 선고 연기를 택하면서 당장 북한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방침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소송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여전히 유보된 모습이다.

통일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실제 판결 이후 어떤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정부의 달라진 대북정책 기조와 어떻게 조율될지가 향후 쟁점으로 남게 됐다. 박용국 기자

거소투표자 76배 과다 산정… 합수본, 송파선관위 관계자 입건

송파·광진선관위 관계자 피의자 조사
중앙선관위 국외출장 의혹도 수사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감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관련 경위 파악에 나섰다. 송파구선관위가 실제 거소투표자보다 약 76배 많은 인원을 예측해 보고한 과정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은 이날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과 광진구선관위 선거담당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송파구선관위가 잠실4동의 거소투표자 수를 과다하게 산정했고, 이 수치가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량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제 투표 현장에서 용지가 부족해진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송파구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잠실4동 거소투표자를 1531명으로 예상해 상급 선관위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신고된 거소투표자는 20명에

불과해 예측치가 실제 신고 인원의 약 76배에 달했다.

거소투표자 수가 과도하게 산정되면서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잠실4동 제7투표소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436장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한때 투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실무자들이 실제 거소투표자 수가 확인된 이후에도 기존 수치를 수정하지 않은 경위와 내부

보고 과정, 의사결정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선거담당관과 계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날 소환 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산정 과정에서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 범위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별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국외출장 관련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외출장 관련 업무 처리 과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일부 선관위 간부들이 국외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 등 행정 업무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의 거소투표자 수 산정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한편, 선관위 내부 보고와 행정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용국 기자

황희 ‘페버스’ 발언 후 과거 자녀 교육·유럽 방문 논란 재조명

온라인서 외국인학교 교육비 등 다시 거론… 황 의원 과거 해명도 주목

황희 의원(사진)의 이른바 ‘페버스 청년주택’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자녀의 외국인학교 재학과 유럽 방문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논란도 온라인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스레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황 의원의 자녀가 미국 유학을 거쳐 고액의 학비가 드는 외국인학교에 다녔다는 점을 언급하며, 청년 주거 대책으로 페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자녀 교육 문제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당시 황 의원의 딸이 연간 수업료가 약 4200만원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졌으며, 황 의원은 딸의 미국 유학 비용과 관련해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황 의원이 페버스 활용 정책의 모델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언급하면서 과거 유럽 방문 논란도 다시 소환됐다. 그는 20대 국회 당시 본회의가 예정된 기간에 병가 처리된 상태로 가족과 함께 스페인 등 유럽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황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병가 표시는 보좌진의 실수였으며, 일반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관용여권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누리꾼은 유럽의 주거 사례를 참고했다면서 국내 청년들에게는 페버스를

활용한 주거 방식을 제안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제난으로 페버스에서 생활하는 베네수엘라 주민들의 사례를 끌어와 비교하며, 이를 청년 주거정책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의 해명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해당 발언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가볍게 바라본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황 의원 딸의 외국인학교 재학 사실은 2019~2021년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현재도 해당 학교에 재학 중 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페버스 발언을 계기로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자녀 교육비와 유럽 방문 논란까지 재조명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용국 기자

장윤기 엄벌 탄원 4만7000명 넘어… 31일 재판부 제출

온라인 4만1452명·오프라인 5816명 참여… 법정 최고형 촉구

여고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 서명에 4만7000여명이 동참했다.

11일 고(故) 이재원 학생 추모모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기준 탄원 참여자는 총 4만7268명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에서는 개인 4만1246명과 단체 206곳 등 4만1452명이,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주민 등 5816명이 서명했다.

온라인 참여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757명(26.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772명(2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4564명(11.0%)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만7020명(4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0대 이하도 7863명(19.0%)이 참여해 10대 이하와 20대 참여자가 전체 온라인 서명자의 60.1%에 달했다.

탄원 의견 가운데 장윤기에 대한 엄벌과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내용이 6030

건(65.8%)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추모와 유가족 위로는 2321건(21.5%), 재발 방지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 요구는 1209건(11.2%), 가해자의 영구 격리 요구는 1029건(9.5%)이었다. 증거인멸 여부와 공범연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의견도 641건(5.9%)으로 집계됐다.

추모모임은 오는 31일 열리는 결심공판에 맞춰 지금까지 모인 서명을 담은 1차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로 접수되는 서명을 모아 다음 달 말 2차 탄원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추모모임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수많은 국민이 뜻을 모아준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정의 구현을 향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1차 목표인 5만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이양에게 성범죄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 ©뉴스1

목적으로 접근한 뒤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 3일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 A씨를 감금·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7월에는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일곱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윤기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나래 기자

WeConnectScience

충전 한번으로 메디슨 갈 수 있어야
과학이다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더 오래가는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도 자유롭게 달리게 하자
과학으로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 화학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사역: ‘성과’가 아닌 ‘거함’으로 부르시는 선교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네셔널(CDI)은 브렌트 풀턴 박사(사진)의 기고글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핵심 조건이다(Abiding in Christ is a key requirement for God's mission)'를 8월 10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브렌트 풀턴 박사는 차이나소스(ChinaSource)의 설립자로, 2019년까지 초대 대표를 역임했다. 그에 앞서 휘튼칼리지 중국연구소(Institute for Chinese Studies)의 운영 책임자로 섬겼으며, 그 이전에는 중국선교인턴셔널(China Ministries International)의 미국 초대 대표와 홍콩 중국교회 연구센터(Chinese Church Research Center)의 영문 출판 편집자로 활동했다. 현재는 중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섬기는 멤버 케어 전문가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으며, 중국의 종교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중국 교회에서 뻗어 나오는 선교 운동이 점차 자리를 잡고 세계 교회가 이 운동과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동역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질문도 커지고 있다.

이 시리즈의 1부에서 필자는 선교가 주로 '경영의 실무'처럼 다루어질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살펴봤다. 수단과 목적이 뒤섞이고, 그 결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마저 흐려질 수 있다는 문제였다.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몇몇 선교 활동만을 중심으로 운동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은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소속됨에서 시작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 15:7-8)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수적이다. 제자가 자기 자신과 다른 신자들, 그리고 세상과 맺는 모든 관계는 바로 이 친밀함에서 흘러나온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열매는 가지가 이를 악물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힌다.

'거한다(abide)'는 것은 머무르는 것, 쉼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참된 자리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 없는 삶(A Non-Anxious Life)』의 저자 앨런 파들링(Alan Fadling)은 이렇게 적었다: "예수님은 애쓰고 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연합에서 비롯되는 '머무름'과 '거함', '살아감'을 자주 말씀하신다. 리더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들은 더 이상 결과나 타인의 인정, 성과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지 않는다. 더 단단한 내적 중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 존재 자체가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며, 그 삶에서 맺히는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나 여기서 주어지는 핵심 명령은 열매를 억지로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이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을 쥘어짜는 것이 아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자양분을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다.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맺히는 결과다. 거함이 없다면 참된 열매도 없다. 열매는 제자도의 외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열매 자체가 제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doin')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로 존재하는가(being)'에 달려 있다. 생산성이 아니라 관계에서, 분주한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의존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순종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지, 순종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거짓된 정체성

제자들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 간다. 마치 가지가 자신이 붙어 있는 포도나무의 생명과 성질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반대로 제자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언가에 자신의 삶을 깊이 뿌리내린다면, 그는 결국 그것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어떤 전략이나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겉으로는 매우 생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영적인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다.

'선교사'라는 직함과 정체성 자체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선교사답게 보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고향의 안락함과 익숙한 삶을 포기하는 등 수많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정 선교 단체나 리더와의 관계에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보다 그 조직이나 지도자의 모습을 더 닮아가게 될 위험이 있다.

사역 현장에서 결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이러한 거짓 정체성은 더욱 강화된다. 많은 경우 영적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죄나 헌신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생산적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은사와 역량을 베푼단 일을 억지로

감당하도록 내몰린 결과일 수 있다.

이들은 '자아에 대해 죽는다'는 명목 아래 무조건 주변에 맞추고, 무리에 섞이기 위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까지 고통스럽게 감당하며,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1절이 말하는 기쁨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자신이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바로 옆의 동역자를 사랑하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진다. 평안은 사라지고, 자신과 타인을 향한 조급함과 짜증만 커진다.

더 철저히 훈련받고, 더 절제하며, 더 많이 순종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면 오히려 절망과 무가치감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선교라는 대의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소진하라고 요구하는 리더십 역시 같은 문제를 만들어낸다.

◆플랜 B는 없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더 많은 일을 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리로 진실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역자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선택일 수 있다. 특히 팀이나 파송 기관에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리더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리더의 정체성이 과거에 설정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과 깊이 얽혀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기 위해 그 목표들을 다시 검토하거나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

조직에게도 위협적일 수 있다. 단체의 '브랜드'가 외적인 성공 지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플랜 B는 없다. 그리스도의 "내 안에 거하라"는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다.

이러한 내적인 씨름이 선교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이 열방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의 내면을 다시 빚어가시는 과정일 수 있다.

진척이 느려 보이는 이유가 반드시 사역자들이 더 빨리 움직여야 하기 때문은 아니다. 어쩌면 그 반대일 수 있다. 속도를 늦추고,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을 빚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손길 아래 잠잠히 머물러야 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성령과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풀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육체적인 한계와 정서적인 상처를 직면하고 받아들여야만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이해도 필요하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태도와 행동을 드러내시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겸손과 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다.

사역자들이 이러한 모든 과정을 아버지의 사랑



©ChatGPT

의 손길에 맡기고,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사역의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끄시는 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준비하신 자리로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사랑이 요구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고독과 침묵을 훈련하는 것, 기도와 묵상, 고백과 같은 영적 실천은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 그러나 아마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의무가 되어버리면, 유익한 영적 훈련도 얼마든지 율법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과업 지향적인 사람은 이런 훈련까지 '해야 할 일 목록'에 추가해 놓고, 성령의 역사에 실제로 자신을 내어드리기보다는 또 하나의 과제를 처리하듯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관상적(contemplative) 성향이 강한 사람은 영적 훈련 그 자체에 몰두한 나머지, 정자 삶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에는 저항할 수 있다.

영적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할 삶의 명백한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자신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실천의 횟수나 강도만으로 영적 성장을 측정할 수는 없다.

다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돌아가 보자.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열매의 핵심 척도는 결국 '사랑'이다. 제자들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5)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 역시 대부분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그러하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동역자들을 향한 사랑은 사역 현장에서 지속적인 열매가 맺히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그 모든 열매가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근원이다.

이 사랑이라는 열매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결코 부차적인 지표가 아니다. 오히려 사역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가족 관계가 어떠한지, 그들의 결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해 드러난다: 그들은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거나, 부부 사이

에는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자녀들은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동역자들은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문화와 성향의 차이에 따라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한 문화권에서 사랑으로 여겨지는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무례하거나 무관심하게 보일 수 있다. 또 지나친 간섭이나 우월감을 드러내는 행동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게리 채프먼(Gary Chapman)의 연구가 보여주듯, 사람마다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가장 큰 계명'을 실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다문화 팀에서는 서로 다른 기대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사랑이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일일 수 있다 '지금 이 관계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보다 성과가 앞설 수 없다

이른바 '성과'라는 지표가 사역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관계의 역기능과 상처는 너무 쉽게 무시된다. 사람들이 다치더라도 그것을 목표 달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수적인 피해처럼 여기기 쉽다.

그러나 사람보다 성과를 앞세우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도 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역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빛나는 장소는 역설적으로도 잘 정리된 전략 회의실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한가운데다. 갈등과 상처, 오해와 차이가 뒤섞인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회복되고 서로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향해 드러난다.

만물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선교의 출발점은 결국 '거함'이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원리는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자인이든 외국인 이든, 중국인이든 비중국인이든 수많은 사역자에게 이는 여전히 급진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생명력 있는 관계 속에서 삶과 사역을 걸어 올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성과보다 관계를 우선하고, 속도보다 형성을 선택하며, 자신의 힘보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사역자 자신이 변화되고, 팀이 변화되며, 결국 지역 공동체도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선교 현장에서 진정한 동역이 꽃피울 수 있는 가장 견고한 토대다.

하나님의 선교는 더 많이 일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서 시작된다. 다니엘 최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저장 해임면도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기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기업)
- 경로 선택금융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그래도 꿈은 버리지 말자

본문: 창 37장 1~11절
설교: 이선규 목사
(대림대문화센터 대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요셉만큼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인물도 드물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았던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의 꿈은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자질구레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는 밭에서 곡식 단들이 자신의 단을 둘러싸고 절하는 꿈을 꾸었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도 꾸었다. 이 꿈은 요셉이 스스로 만들어 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미리 보여 주신 표지였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 주신 꿈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 꿈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

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의 자람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했다. 인생에는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지만, 누구도 수고와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야곱의 각별한 사랑은 형들의 시기과 미움을 불러왔다. 더욱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의 미움은 한층 깊어졌다.

요셉이 양 때를 치던 형들을 찾아 도단에 이르렀을 때, 형들은 멀리서 그를 보고 죽으려 했다.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고난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러나 야곱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요셉의 삶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고난과 연단을 통해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다.

◆꿈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요셉을 곧바로 높은 자리에서 세우지 않으셨다.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하였고, 역울한 노역을 쓴 뒤에는 감옥에 갇히게 하셨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연단받았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에게 성실과 책임, 인내와 자해를 가르치셨다.

신앙의 성장에도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 정금이 뜨거운 불을 통과하며 불순물을 벗듯이, 하나님의 사람도 시련을 지나며 믿음이 단단해진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를 깨우고, 낮추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빚기 위해 찾아온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수고와 땀, 희생과 열정, 헌신과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사랑하던 가족과 헤어졌으며, 이국땅에서 종살이를 했다. 역울하게 감옥에 갇혀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감옥에서도 책임을 다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상황이 바뀌

어도 요셉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했다.

꿈을 품으면 때로 높은 장벽을 만난다. 그러나 장벽을 만났다고 해서 꿈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어야 한다. 꿈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태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나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격려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처리해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 감옥에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해 간수장의 신뢰를 받았다. 요셉은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지 않았다. 어느 곳에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도 필요하다. 꿈을 품고 있으면서 아무런 희

생 없이 이루어지지만 바라다면 그 꿈은 허황된 기대에 머물 수 있다. 꿈의 성취를 바라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필요한 대가를 가까이 치려야 한다.

또한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꿈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조금 한 마음에 포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참고 일했고, 감옥에서도 인내하며 어려움을 이겨 냈다. 그는 자신의 때를 역지로 앞당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실 길을 기다렸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꿈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영적 훈련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 꿈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주신 꿈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래도 꿈은 버리지 말자

요셉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떨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가족을 살

리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로마서 5장 3-4절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한다. 오히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다(요기 23장 10절).

오늘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말한다. 가정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교회도 어렵다는 탄식이 들려온다. 그러나 그럴수록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현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망까지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교회는 절망한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세상이 끝났다고 말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고 증언해야 한다.

한국 교회여, 요셉이 품었던 믿음의 꿈을 안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현실의 장벽 앞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인내와 성실과 기도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을 이루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들



박종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부르셨으며, 그의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마침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의로움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맡았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지위가 아니라 감사로 감당해야 할 은혜이며 사명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밝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결하며, 같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구별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세워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복음을 간직하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은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고, 복음의 소망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은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 주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어 기도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품으며,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소유하는 데 머물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진유철 목사
나선순복음교회



어려움을 만날 때는 내 마음이 '없는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점점 더 없는 것만 보이고 기죽게 되어 결국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패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계19:6)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엡1:23)이신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과 죄, 사망, 심판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4:7)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승리의 행동과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르틴루터가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 부인인 '카타리나 본 보라'가 검은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요? 누가 죽었소?' 그러자 카타리나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요? 그러자 카타리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루터는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살아 계신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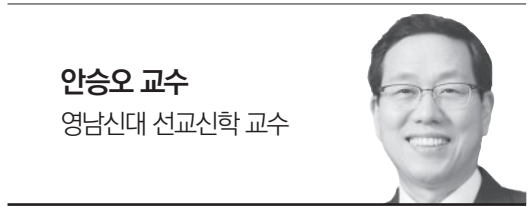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에 귀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된다면, 역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붙들 수 있는 간절한 갈망을 일으켜야 합니다. 진짜를 붙들면 헛된 것에

취동됨을 당하지 않습니다. 서서핑 선교사(Elizabeth Johanna Shepping)는 독일 출생으로 미국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뒤, 1912년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조선에 와서 전파 광주에서 23년 9개월 선교하다가 53세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나환자들을 직접 손으로 돌보았으며, 버려진 아이들과 과부 등 14명의 수양 자녀를 직접 거두어 키웠습니다. 가난과 차별 속에서 교육받지 못하던 조선 여성들을 위해 이일학교를 설립하였고, 한국 현대 간호학의 기틀도 다졌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 조선 땅에 왔지만 차별과 고통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견뎌내게 한 책상 옆에 써 붙여놓은 좌우명의 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수천 명의 한센인과 과부, 통곡하는 조선인들이 거리를 메운 채 "아메니아메니"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롬!



일본 현지 성도를 ‘생활순교사’로 깨우는 풀뿌리 운동

[선교 칼럼 시리즈③] 일본 선교, ‘생활선교’로 다시 길을 찾다



안승오 교수
영남신대 선교신학 교수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다각적인 대일 선교를 펼쳐왔다. 한국교회 대일 선교가 봉착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의 일본 교회를 일으켜 세울 가장 본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포항 기쁨의교회(담임 박진석 목사)가 추진해 온 ‘생활선교(생선) 운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 2026년 7월 히로시마 방주교회와 협력하여

개최한 “제1회 Japan 생선 컨퍼런스”는 한국교회 가 주도하는 선교에서 벗어나 일본 현지 교회가 복음화의 주체로 일어서게 만든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생활선교 운동의 핵심은 ‘선교 주체와 방식의 근본적 전환’에 있다. 기존 선교가 한국교회나 외부 선교사 중심의 외부 투입형이었다면, 생활선교는 일본 현지 교회의 성도 개개인(어린이부터 노년층 까지)을 삶의 현장에 파송된 독립적 선교사로 깨우는 ‘자생적내부 발현형 풀뿌리 운동’이다.

이 운동이 일본 선교의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되는 이유는 세 가지 핵심 가치에서 비롯된다.

첫째, 외부에 대한 거부감을 허무는 내부 발현적 접근이다. 문화차이심리적 경계심이 강한 일본인

들에게 외부 거대 조직의 과시형 선교는 거부감을 주기 쉽다. 반면, 현지 일본인 성도가 자신의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라는 삶터에서 거룩한 ‘생활수도사’로 살아가며 관계를 맺고 복음을 살아낼 때, 일본 사회 특유의 깊은 정서적 장벽은 자연스럽게 무너진다.

둘째, 현지 성도들을 ‘생활순교사’로 거듭나게 하는 정체성의 혁명이다. 생활선교는 단일한 종교 활동에 안주하는 명목상의 신자(Nominal Christian)를 거부한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강력한 세속화의 압박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삶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생활순교사’의 태도를 요구한다. 컨퍼런스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간증은 열매가 더딘 환경에서 “그저 살아가기만 하는 것 같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던 성도들에게 “내가 살아내는 일상과 견뎌내는 삶 자

체가 하나님께 드러지는 거룩한 선교”라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일본인 스스로의 열정과 헌신을 끌어올린다.

셋째, 지속 가능한 ‘자생적 선교 생태계’의 구축이다. 외부 재정이나 일회성 이벤트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선교는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생활선교는 성도의 일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 사역(Kingdom Ministry)으로 바라보게 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일본 전역에서 새로운 생활선교 운동에 뜻을 모은 수많은 사역자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일본 열도 전역을 잇는 거룩한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러한 자생적 네트워크는 서로에게 강력한 영적 동력이 되며, 외부의 도움이 끊겨도 현지 교회가 스스로 부흥하고 선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토대가 된다.

요약하자면, 포항 기쁨의교회가 보여준 일본 선

교는 일본 교회가 스스로 일어선다.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선교다.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야말로, 종교에 무감각해진 현대 일본인들에게 복음의 실제적 능력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한국교회가 맞이한 위기 극복의 열쇠와 일본 복음화의 대안은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교회가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 성도의 일상을 선교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의 현장에 파송된 ‘생활순교사’로 깨워, 그들의 일상과 헌신을 통해 밀바닥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피어오르게 만드는 ‘생활선교 운동’.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일본 땅을 살리고 나아가 세계 교회를 살릴 가장 지혜롭고 본질적인 선교적 돌파구다.

시간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물질세계에 사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화가 진행되고, 좋았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끝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간은 속도와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이것을 시간 지연(Time Dilation)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물체 안에서 흐르는 시간은 더욱 느려집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을 타고 빛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한 사람은 지구에 남아 있던 사람보다 노화가 더 천천히 진행됩니다. 또한 시간은 중력의 영향도 받습니다. 질량이 큰 천체일수록 중력이 강해지고,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릅니다. 블랙홀 가까이에서는 시간이 훨씬 더 천천히 흐릅니다. 영화에서 종종 보듯이, 블랙홀 근처에서 1시간을 보냈는데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수년의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이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속도와 중력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GPS 위성과 같은 매우 정밀한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상대론적 시간의 차이를 실제로 계산하여 보정합니다. 다시 말해, 지구와 인공위성에서는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르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 물리학의 결론을 참고해 보면, 시간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때와 날을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믿는 성도는 시간에 대해 특별한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1) 먼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지 있게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2) 그리고 우리는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비록 우리는 크로노스(Chronos)라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Kairos), 자신의 시간대에서 다르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살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우리의 속도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곧 카이로스의 시간 속을 걷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운명처럼 흘러가는,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걸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사십시오. 영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시간대를 결정합니다. 속도와 질량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영혼의 오아시스에 잠시 머무십시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잠시 멈추면 뒤쳐질 것 같고, 쉬면 게으른 사람이 될 것 같아 계속 달립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탈진하고, 탈진이 쌓이면 소진에 이릅니다. 소진된 사람은 무력해집니다. 의욕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삶의 활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재충전을 위해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재충전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멈춤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막 6:31). 예수님은 필요한 때 잠깐이라도 멈추어 쉬라고 가르치십니다. 짧은 멈춤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하늘을 바라보고,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잠깐 마음을 묵상하고, 잠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왜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째, 잠시 멈출 때 고요를 경험합니다. 멈춤은 고요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몸이 멈추면 비로소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깥의 소음이 잦아들고 내면의 소음마저 잠잠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몸은 한곳에 있지만 마음은 수십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휴식만이 아니라 고요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사 30:15).

고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고요는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며, 삶의 방향을 다시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고요를 두려워합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의 공허와 상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합니다.

둘째, 잠시 멈출 때 영혼이 재충전됩니다. 재충전의 시간은 사막에서 오아시스에 머무는 시간과 같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에게 오아시스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고, 그늘 아래 머물며, 지친 몸을 쉬게 해야 다시 사막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아시스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영혼의 오아시스입니다. 말씀 묵상은 영혼의 오아시스입니다. 기도와 찬양, 침묵과 독서도 영혼의 오아시스입니다. 자연 속의 산책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도 영혼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에 머무는 동안 지친 몸이 회복되고, 흐려진 생각이 맑아지며, 메마른 감정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을 향한 열정이 회복됩니다. 영혼의 재충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전자기기가 전원에 연결될 때 충전되듯이, 우

리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충전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사 40:31).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그분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셋째, 재충전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생명력이 풍성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어렵습니다. 빈 잔으로는 다른 사람의 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메마른 물웅덩이에서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정기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재충전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요 15:5). 재충전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더 오래 섬기기 위한 시간입니다. 더 멀리 걸어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났다면 서둘러 떠나지 마십시오. 그 곳에 잠시 머무십시오. 생수를 마시고, 그늘 아래 쉬며, 영혼을 다시 충전하십시오. 함께 머무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순례길에 필요한 자해를 얻으십시오.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원은 사명을 더욱 아름답게 완수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영적 재충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GaiN Korea, 필리핀 민다나오·베네수엘라 지진 피해지역 긴급구호 나서

대규모 지진으로 수십만 명 피해...

식량·식수 지원부터 심리사회적 회복과 장기 재건까지 추진

GaiN Korea가 대규모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 민다나오와 베네수엘라 피해 현장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에 나섰다.

필리핀 민다나오와 베네수엘라는 최근 강진과 연쇄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GaiN Korea는 현지 파트너 및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해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민다나오에서는 지난 6월 8일 남부 사랑가니 인근 해상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1976년 모로만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후 7,000회 이상의 여진이 이어졌다.

강진으로 인한 산사태와 도로 및 교량 파손까지 겹치면서 피해 지역에 구호 인력이 접근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12만 채가 넘는 가옥이 파손됐으며, 34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랑가니주 글란 지역은 가옥의 81%가 파손된 데다 해안가 쓰나미 피해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크게 훼손됐다.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이 기

본적인 식량과 식수 등 생필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속한 긴급구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강진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확산됐다. 아라카이주 유마레 인근에서 규모 7.2의 전진이 발생한 뒤 불과 39초 만에 규모 7.5의 강진이 이어졌으며, 수도 카라카스와 라과이라주 일대에도 과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기존의 경제적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이른바 '재난 위의 재난' 상황에 놓였다. 7월 8일 기준 3,800여 명의 사망자와 5만5,0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병원 파손과 주요 인프라 마비, 응급 물자 부족 등으로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길거리와 주차장 등을 임시 거처로 삼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및 응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구호물품마저 부족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GaiN Korea는 현지 파트너와 GaiN Philippines, GaiN Australia, GaiN Germany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대해 즉각적인 긴급구호 활동에 착수했다.



필리핀 민다나오 사랑가니주 글란 지역 지진 피해 사진. ©GaiN Korea

필리핀 민다나오 피해 지역에는 12단계로 나눠 이재민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식수와 식량, 의류를 비롯해 정수 필터와 태양광 랜턴 등 재난 직후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상 구호물품을 현지에 전달할 계획이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보다 종합적인 구호 및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GaiN Korea는 재난대응팀(DART)을 현지에 파견하고, 구호물품을 담은 컨테이너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 정수 시스템을 설치해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지원(PFA)도 진행한다.



GaiN Korea 관계자들이 필리핀 민다나오 지진 피해 지역에서 이재민들에게 식량과 식수 등 긴급 구호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GaiN Korea

현지 파트너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도 추진한다. GaiN Korea는 단기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제 위기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현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원단 및 재봉틀 지원 등 장기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지 주민의 증언을 통해서도 당시 지진의 간박한 상황과 구호 지원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필리핀 사랑가니주 글란에 거주하는 28세 데릴은 지진 당시 상황에 대해 "지진이 나던 날 아침, 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섰는데 땅이 흔들리기 시

작했다"며 "큰딸은 금방 찾았지만 막내가 보이지 않아 정신이 나갈 것 같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두 아이 모두 무사히 품에 안았고, GaiN이 교회를 통해 전해준 식량과 정수 필터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다"며 신속한 구호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GaiN Korea는 피해 주민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을 견디고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후원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GaiN Korea 측은 "가장 절박한 순간, 절망 속에 있는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생필품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라며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필리핀과 베네수엘라 이재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복의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GaiN Korea에 따르면 1만 원으로 이재민 1가구에 태양광 랜턴 또는 한 달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식수를 지원할 수 있다. 3만 원이면 정수 필터와 위생용품 및 여벌 옷을 지원할 수 있으며, 5만 원이면 식수와 식량, 의류 등이 포함된 1주일 분량의 비상 구호 패키지를 전달할 수 있다.

긴급구호 후원은 계좌 후원과 미션펀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계좌 후원은 국민은행 743201-04-116847(예금주: 사단법인 게인코리아)로 가능하며, 이체 시 '성함+민다나오' 또는 '성함+베네수엘라'를 기재하면 된다.

미션펀드를 통한 후원은 필리핀 민다나오와 베네수엘라 각각의 긴급구호 캠페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필리핀 민다나오 캠페인은 미션펀드 민다나오 후원 페이지, 베네수엘라 캠페인은 미션펀드 베네수엘라 후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과 구호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aiN Korea 민다나오 캠페인 페이지와 GaiN Korea 베네수엘라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은 GaiN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지동 기자

드림스드림·PSDI, 파키스탄 의료인재 양성 학교 건립 추진... ‘DD Project 388’ 가동

50여 개국 377개 학교 추진 경험 바탕...

세브란스병원 모델로 의료교육·현지 운영체계 구축

비영리 민간단체 드림스드림과 파키스탄지속가능발전연구원(PSDI)이 파키스탄에서 의료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건립에 나선다.

드림스드림과 PSDI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반에이치클리닉 회의실에서 '파키스탄 의료인재 양성 학교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새로 추진하는 학교는 '드림스드림 388호 학교'로, 프로젝트명은 'DD Project 388'이다.

협약에 따라 드림스드림은 학교 건립을 위한 재정 모금과 건축, 의료인재 양성 교육 지원, 관련 노하우 공유를 맡는

다. PSDI는 파키스탄 정부와 지방정부 협력, 행정 절차, 부지 확보, 학교 운영시스템 구축과 현지 네트워크 관리를 담당한다.

협약 기간은 5년이며, 만료 30일 전 별도의 서면 통보가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
◆50여 개국서 377개 학교 추진... 이번엔 의료인재 양성

서울시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인 드림스드림의 학교 건립 운동은 2013년 10월 네팔에서 시작했다.

임채중 이사장이 네팔 트레킹 도중 현지 학교의 증축 필요성을 접한 뒤 SNS를 통해 모금을 시작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현재 드림스드림은 50여 개국에서 377개 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설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280여 명이 제능기부 방식으로 실무에 참여하고 있으며, 후원금은 학교 건축에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220개 학교는 후원금 모금이 완료돼 운영되고 있다.

드림스드림은 당초 목표였던 100개 학교 건립을 이미 넘어섰으며, 오는 2050년까지 자개발국을 중심으로 1만 개 학교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도 라호르와 파이슬라바드, 카라치 등에 학교를 개설한 바 있다.

◆"140년 전 밤은 의료선교의 은혜, 파키스탄으로"

이번 '드림스드림 388호 학교'는 1885년 제중원에서 출발해 이후 성장한 세브란스병원을 모델로 의료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드림스드림 측은 기존 일반 교육시설 건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채중 드림스드림 이사장은 "드림스드림이 50여 개국에서 377개 학교 짓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3세계에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140년 전 한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의료선교사를 받았듯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파키스탄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넘어 주변 국가까지 인재 양성 기대

PSDI는 주파키스탄 대사를 지낸 송중환 전 대사와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지난 2024년 5월 완공된 파키스탄 카라치의 드림스드림 47호 학교. ©드림스드림

지난해 11월 설립한 민간 협력기구다. 송전 대사가 명예회장을, 이재철 반에이치클리닉 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설립 과정에는 사진작가 알렉스 김이 2011년부터 파키스탄 K2 인근 해발 3200m 수릉고·몬드롱 지역에 초등학교 2

곳을 세우고 120여 명의 학생과 교사를 지원해온 활동도 영향을 미쳤다.

PSDI는 지난 4월 굿네이버스와 파키스탄 태양광 식수위생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협력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무다사르 알리 치마 PSDI 부회장은 "파키스탄에 세워질 학교에서 K-의료 시스템으로 양성되는 인재들이 파키스탄을 넘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인도 등 주변 국가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PSDI 회장은 "교육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의료는 한 생명을 살린다"며 "DD Project 388을 통해 파키스탄에 의료인 양성 학교를 세워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내려 기자

행복한 동행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사명감 있는
교회/단체 환영!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39.75(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 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 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몸만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경북 영주의 수정교회 및 주택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대지: 76평 -매매가: 1억 5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임만재 목사 초청 부흥세미나



**교회여,
다시 부흥하자!**

임만재 목사
(충주 용원교회 원로)

- ▶ 저서: <날도둑 날강도가 많은 교회>
<십일조 안내면 받으러 가자> 외 다수
- ▶ 장신대학원(82기), 목회학박사(맥코믹5기)
목사·장로·권사 제직 세미나 강사
사경회 강사, 인문학 강사, 유튜브(임만재TV)
총회부흥회 강사(전)

연락처: 010-9069-3044, 010-3177-6999
lmj132@hanmail.net

<집회교회>

창천교회 세계로금관감리교회 강남중앙교회 하늘비전교회
영등포교회 포도원교회 포항장성교회 오원교회 구로문교회
북대교회 청복교회 대성교회 안동교회 중문교회 인천시연합
안동시연합 청주시연합 제천시연합 각종 세미나 등 500회 이상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강사 약력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 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화성시·봉담읍·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날 새부터 함께 하소서 **기독교 교회사 (134)**

마니교의 교직제도에는 기독교의 교리가 적용된다. 마니교는 인간 예수는 거부하지만 신의 아들(그리스도)를 거룩한 구원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마니교가 인정하는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르다. 마니교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지만 인간의 구원을 완전하게 책임지는 구원자가 아니라 다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안내자에 불과하다. 마니교에는 아담, 에녹, 석가, 조로아스터, 예수 등등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역적 전도자들로서 민족적 전도자에 불과하며 마니는 세계적 전도자이고 최후의 전도자이다. 마니 밑에는 12명의 사도가 있고 12명의 사도 밑에 70명의 감독이 있다. 감독들 밑에는 많은 교사들이 있으며 교사 아래에 수도사들이 있다. 수도사들은 택한 자와 듣는 자로 구분되는데 택한 자들은 세 가지 인봉을 가진 자들을 말하며 듣는 자들은 듣고 배운 후에 택한 자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다. 마니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환대를 받으며 교세를 확장했으나 조로아스터교에 의하여 제소되고 정죄 받아 십자가에 달려 가족을 벗긴 후 화형당했다. 마니교는 한 때 크게 융성하여 중앙아시아 일대와 인도, 중국, 로마, 북아프리카,

스페인 등지에서 크게 발전했으나 13세기에 이르러 쇠퇴하기 시작한 후 14세기 완전히 소멸되었다. 마니교의 교리는 사실상 보잘 것 없는 것이었지만 기독교가 아직 교리적인 정립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기독교에 여러모로 누를 끼쳤다. 그러나 기독교에 정경이 확립되고 교리가 조직적인 체계를 이루어 정립되어짐에 따라 더 이상 기독교 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축출되었다. 마니교의 교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은 과거 마니교에 심취하였던 아우구스티누스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의 이원론적 교리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로 하여 마니교의 이원론을 반박했다. 세계는 하나님에 의하여 본래부터 선한 것으로 창조되었으며 인류사회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은 선에 대항하는 필연적인 상대세력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발생시킨 범법적 결과라는 성경의 증거를 근거로 하여 마니교의 이원론 교리를 주저앉힌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인간이 부패한 죄인이 된 것은 첫 사람 아담의 원죄와 부패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라는 원죄의 교리를 적용하여 마니교의 이원론 사상에 중지부를 찍어주었다.



몬타누스주의(Montanism)
몬타누스파는 창시자인 몬타누스(Montanus)의 이름을 따라서 명칭되어진 이단 분파이다. 몬타누스는 본래 (A.D. 156년경) 소아시아의 프리기아(Phrygia) 지방에 존재하였던 시벨레(Cybele) 종교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A.D. 172년)에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시벨레 종교의 흔적을 버리지 못하고 시벨레적인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방언과 입신과 예언을 특히 강조했는데 예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로부터 시작했다. 몬타누스는 두 여자 성도인 프리스카(Prisca)와 막시밀라(Maximilla)를 대동하고 다니면서 예언을 했는데 그들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무의식적 황홀

(ecstasy) 상태에서 예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입을 통하여 새로운 예언을 하신다고 주장했는데 그 내용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들을 공박하는 것이었다. 몬타누스파의 3총사라고 불리어졌던 그들은 (A.D. 177년) 페푸자(Pepuza)에 여성형(形)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그들이 모두 사망한 후 데미소(Themiso)가 지도자가 되어 몬타누스파를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설교자에게 월급을 주었으며 그것을 위하여 교인들에게 헌금을 부과하였고 재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부정을 막았다. 그는 한 때 감옥 생활을 하는 등 박해를 받았으나 그것을 순교자의 일생이라고 자랑했다. 몬타누스주의가 서방에 전파되었을 때에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몬타누스주의를 받아 들였는데 (A.D. 207년경)에 터툴리안이 몬타누스주의자가 되어 열열하게 몬타누스주의를 변호했다. 한편 아우구스티누스는 몬타누스주의를 반대하여 그들의 집회를 금지시켰으

며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의 교리 중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몬타누스주의 교리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구약시대-복음서시대-성령시대-로 구분되어지며 성령 시대가 가장 우월하다.
계시의 계속
성령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주어지며 따라서 성경은 계속하여 기록되어 질 수 있다.
성령의 은사
성도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아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고 입신에 들어가게 된다.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A.D. 177년 페푸자(Pepuza)에 여성형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믿음의 열조들을 찾아서 **언더우드를 통해 본 초기 한국교회 (1)**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비록 초기 한국교회 중 몇몇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이루기도 했으나 그들 역시 복음의 빛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받아들였다.
초기 한국교회의 성립과 성장에 있어서 선교사들의 복음적 열정과 희생적 헌신은 비록 그들 중 일부가 조선 민족이 겪고 있던 암울한 시대상황에서 냉소적 이거나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때로는 군림하는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일궈내는 일에 그들의 땀과 피가 조선인 신자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적 수용태도와 헌신과 맞물림으로서 극대화될 수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본고는 그러한 초기 한국교회의 생성을 최초의 조선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드(Horace Grant Underwood, 元杜尤, 1859-1916)의 행적을 통해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은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1992년에 간행한 이광린 펴낸『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우리나라 근대화와 선교활동-을 주 교재(Text)로 삼고, 뿌리깊은 나무에서 1984년 간행한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의 『상투쟁이와 함께 보낸 십오년 세월』(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을 김철이 번역한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생활』을 보조교재로 하여 요약 혹은 기술하였다.
소년기에서 조선 선교를 지망하기까지
언더우드는 1859년 7월 19일 영국 런던에서 아버지 존(John Underwood)과 어머니 엘리자베스(Elisabeth Grant Marie)의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믿음이 두터웠고 화공학 방면에 재주가 있어 인쇄용 잉크를 발명하였고 타자기와 목지, 안전지 등을 발명하

여 영국 왕실 예술원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형 존은 과학적 두뇌와 기업가적 재질을 가지고 있어서 사촌 아더와 함께 대규모 회사를 경영하였는데, 1885년경 그랜드 147번지 ‘호그랜드 화약회사’의 땅을 매입, 타이프라이터 기계를 제작 ‘존언더우드회사’를 설립하였고 ‘와고너(Wagoner)란 사람의 특허를 얻어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회사’를 세웠다.
1865년 5세 때 생모가 별세한 후 아버지의 재혼으로 계모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아버지 존은 부친(언더우드의 조부)인 토마스의 과학정신을 이어받았는데 토마스는 의학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업자로서 18세기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설교가이며 해외선교와 교파연합운동에 관심이 컸던 ‘와우(Alexander Waugh)목사의 딸과 결혼하였다.
‘와우의 폭넓은 도량, 인류애, 통합에 대한 집념, 지도력은 외손자인 언더우드에게 영향을 끼쳤다.

언더우드의 아버지는 교육열이 강하였다. 그는 언더우드를 인근 학교 수학시켰다가 10세 되던 해에 프랑스 ‘브롱 슈메르’ 지방에 있는 카톨릭계통의 학교에 입학시켰다.
‘존’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가세가 기울자 1872년 미국으로 이민하였고 프랑스에 있던 아들과 영국의 가족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뉴 더햄(New Durham)에 정착하여 화란 개척교회(Dutch Reformed Church)에 적을 두었다.
언더우드는 저어지(Jersey) 시에 있는 ‘헤스부룩’소년학원(Hasbrook Seminary of boys)에 입학하였다.
이곳에서 ‘그로브’교회의 목사 메이본(Mabon) 박사의 지도로 대학 진학을 위한 개인지도를 받고 진학을 위한 헬라이어 과정을 6개월만에 마쳤다.
언더우드는 헤스부룩 소년학원을 마친 뒤 17세 때인 1877년 뉴욕대학에 진학하

였는데, 그는 이 곳에서 희랍어와 웅변과목에서 월등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삼각법, 분석기하학, 천문학, 화학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런 준비는 후일 제중원에서 자연과학 계통의 학문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었다.
1881년 뉴욕대학을 졸업하여 문학사 학위를 받고 그해 가을 ‘뉴 브린즈워’시에 있는 화란 개척 신학교(The Dutch Reformed Theologica Seminary)에 입학하였다.
언더우드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업에는 물론 전도활동에도 열심을 내었다.
1883년 여름과 이듬해, 즉 신학교 마지막 해에 그는 뉴 저어지(New Jersey) 즉 폰턴(Ponton)에 있는 교회를 맡았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동안 언더우드는 선교사의 비전을 갖게되었고, 1884년 11월 목사안수를 받고 뉴욕 시에 있는 한 교회의 협동목사로 있으면서 인도선교를 위하여 의학을 1년간 공부하기도 하였다.

언더우드의 인도 선교 소망은 열네살 때부터였으나 후에 선교지방 지역을 한국으로 바꾸었다.
그는 화란개척교회의 선교부에 한국 파송을 요청하였으나 재정부족을 이유로 거절되었다.
그 후 북장로교회에 가서 파견을 요청하여 처음에는 거절되었으나 곧 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 승인은 한국지명선교사가 파송되지 못할 형편이 되자 그의 몫으로 남겨진 것이었다.
그는 엘리우드 박사의 지원과 ‘맥윌리암스’의 기부(6천달러)로 1884년 7월 28일 미국 장로교 선교본부에 의하여 한국 최초의 목회선교사(Clerical Missionary)로 파송되었다.
언더우드는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1월 25일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그는 한국 사회가 갑신정변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으므로 일본에 우선 정착하였던 것이다. 〈계속〉 열방선교단 제공

행복한농촌, 강게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강정훈의
성서화 탐구

중세 삽화로 읽는 요한계시록(6)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하여(제8장)

◆침묵의 반시간, 폭풍 전야의 고요함 =

사도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서 숨을 죽이며 세상 마지막 날의 여섯 가지 징조들을 보다가 너무 무서웠는데 이내 평화로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었다. 144,000명이 이마에 도장을 받고 더 이상의 대환난을 면하겠다는 어린 양의 약속을 듣고 요한은 침을 꿀꺽 삼키며 '아! 다행이다' 하며 그들이 부르는 감사의 합창을 따라 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복한 순간에 잠겨있던 요한은 하늘이 얼마동안 정적에 싸여 너무 조용하므로 불안하였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늘 보좌를 보았더니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둘러싸인 하느님이 일곱째 봉인을 떼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일일까?' 가슴을 조이며 바라보면서 그 장면을 기록하였다.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었을 때에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금항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는 항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히 담아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계8:1-5)

12세기 스페인에서 제작된 우엘가스 목시록의 이 전면도판 삽화는 파란 후광 가운데 옥좌에 앉은 하느님이 일곱 나팔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일곱 번째 봉인을 떼는 장면이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하느님 앞에 줄을 서 있다. 그리고 황금 제단 위에 서있는 천사는 금항로에 성도의 기도를 채우고 단 위의 불을 담아가다 땅위에 막 쏟고 있다. 이 순간 번개와 우뢰소리가 요란한 속에 온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땅과 바다의 피조물 삼분의 일이 죽다 = 천사가 금항로를 땅위에 쏟아 부으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드디어 2단계 재앙이 시작된다.

삽화는 11세기 프랑스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채색 삽화로 유명한 생 세베르 베이투스스의 첫째 나팔이 불 때의 <불과 피가 섞인 비>이다.

그림에서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땅과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오르며 푸른 풀이 모두 다 타버리는 재앙이 발생하였다.

다음은 바다 차례였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고 모든 선박의 삼분의 일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계7:8-9)

이 재앙은 모세의 출애굽기의 열 재앙 중 나일강이 피가 된 재앙과 흡사하며, AD 79년 나폴리만 부근에 있는 베스비우스화산이 대 분화를 일으켜 그 기슭에 있던 폼페이 등 도시들을 삼켜버린 재앙을 연상케 한다.

◆오염된 강과 빛을 잃은 하늘 =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췌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모든 강의 삼분의 일과 샘물들을 덮었습니다. 그 때문에 물이 삼분의 일이 썩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쓴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계8:10)

췌불처럼 타면서 떨어진 별은 독을 품은 별로서 지금도 오염된 물을 먹고 죽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나팔은 하늘의 파멸적 재앙을 가져 온다. 위의 그림은 11세기 스페인의 파룬도 베이투스스의 삽화이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팔 끝 쪽 하늘의 둥근 태양과 달이 이지러져 낮과 밤의 삼분의 일이 어두컴컴하고,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게 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이 넷째 재앙은 지구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행성충돌과 스모그로 캄캄해진 도시를 연상케 된다.

◆독수리의 경고(짧은 막간 환상) =



트럼펫을 든 일곱 천사의 출현, 우엘가스목시록(Appearance Of The Seven Angels With Trumpets, Las Huelgas Apoc-
alypse) | 베이투스 리에바나(Beatus of Liebana) | 스페인 | 1220년 ©모건도서관(Pierpont Morgan Library), 뉴욕

위의 그림 중 넷째 천사 앞의 독수리는 무대 막 앞에서 촌극을 하는 것과 같이 관객에게 <독수리의 경고>를 들려준다.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큰 소리로 '화를 입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땅 위에 사는 자들은 화를 입으리라. 아직도 천사들의 불 나팔 소리가 쉼이 나 남아있다.'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계8:13)

독수리의 경고는 앞으로 남은 세 차례의 나팔은 이전의 네 차례의 나팔과는 달리 인간으로 하여금 직접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큰 화를 당하는 악마적인 재앙이란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나팔은 택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에 대한 재앙으로서 자연계와 피조물을 상대로 악한 세상을 심판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하느님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불과 피가 섞인 비, 성 세베르 베이투스(The rain of fire and blood, the Apocalypse of St. Sever, St. Sever Beatus) | 생 세베르사원(the Abbey of Saint-Sever) | 프랑스 | 11세기 | public domain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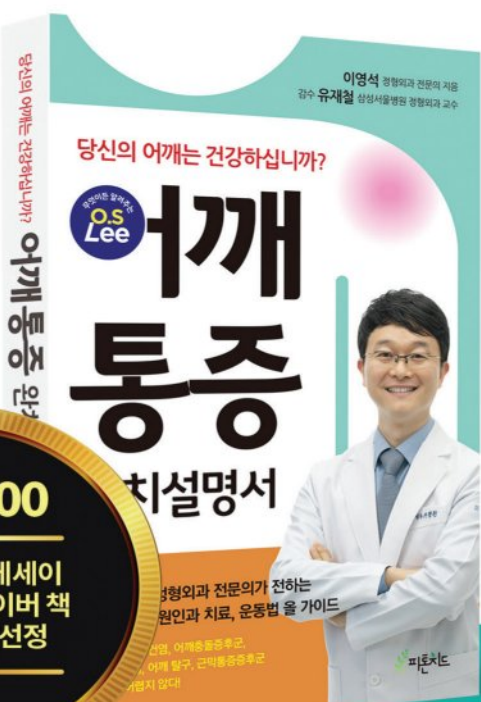
해와 달과 별을 어둡게 하는 넷째 나팔, 파룬도 베이투스(The Fourth Trumpet obscuring the Sun, the Moon, the Stars. Facundus Beatus) | 1047년 | 양피지에 채색(Illumination on parchment) | 195x180mm ©마드리드 국립도서관(Biblioteca Nacional, Madrid)

◆강정훈 교수

강정훈 교수는 연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그리고 성균관대학원(행정학박사)을 졸업하고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뉴욕총영사관 영사 및 조달청장(1997~1999)으로 봉직했다. (사)세계기업경영개발원 회장 및 성균관대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신성대학교 초빙교수(2003~2016)를 지냈다. 미암교회(예장) 원로장로이며, 1994년에는 기독교잡지 새가정에 1년 2개월간 성서화를 소개하는 글을 연재한 후 현재도 서울 성서화 라이브러리(<http://blog.naver.com/yanghwajin>)를 운영하며 성서화를 쉽고 폭넓게 전파하기 위해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천년의 신비 성서화" "이천년의 침묵 성서화" 등이 있다.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교계

2026년 8월 12일 교계 주요 일정표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제52회 CBMC 한국대회 개막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 한국)	8월 12일(수) ~ 8월 14일(금)	대구 EXCO
故 김승모 님 추모기도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 사회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영등포산업선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8월 12일(수) 오후 4시	경기도 평택시 안중장례문화센터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국제 워크숍 및 모임	동북아 평화체제 국제연대(준)	8월 12일(수)~ 8월 13일(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더숲 아카데미하우스
8월 12일자 가정예배	은혜와진리교회	8월 12일(수)	각 성도 가정
수요기도회	신일교회	8월 12일(수)	신일교회 예배당
수요기도회 및 성경 통독	진리교회	8월 12일(수) 오후 8시	진리교회 예배당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한국 교계 연합기관과 산하 교단 및 연대 단체들의 주요 행사와 예배가 전국 각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 한국)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대구 EXCO에서 '제52회 CBMC 한국대회'를 개최한다. “시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막 16:15)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벤션에는 국내외 일터 사역자와 기독교 기업인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사회선교 연대 단체들의 추모행사도 진행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 사회위원회를 비롯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영등포산업선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교회인권

센터 등 5개 단체는 8월 12일 오후 4시 경기도 평택시 안중장례문화센터에서 'HL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故 김승모 님 추모기도회'를 공동 주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 연대 행사로는 동북아 평화체제 국제연대(준)가 주최하는 평화 워크숍이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강북구 더숲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다. 해당 행사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종교사민 활동가 및 안보·평화 전문가가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화원 교단 소속 개교회들의 정기 모임 및 예배도 이어진다. 은혜와진리교회는 8월 12일자 가정예배 교재를 바탕으로 각 성도 가정에서 예배

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일교회와 진리교회(이사야 55-57장) 프로그램을 당일 개최는 각각 정기 수요기도회와 성경 통독 최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선교

2026년 8월 12일 주요 선교단체 일정표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제48기 두날개 단기선교사 오리엔테이션	두날개선교회	8월 12일(수) 13:00 ~ 8월 15일(토) 11:00	두날개선교회 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91)
2026 키즈 캠프(KIDS CAMP)	케이오지미션 (KOG Mission)	8월 12일(수) ~ 8월 15일(토)	케이오지미션 지정 장소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해외선교사 훈련 및 다음세대 선교를 담당하는 전문 선교기구들의 주요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당일 진행되는 선교단체의 세부 일정 및 안내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외선교사 파송 및 훈련 기구인 두날개선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본부에서 '제48기 두날개 단기선교사' 오리엔테이션을 2026년 8월 12일 오후 1시부터 개최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8월 15일 오전 11시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훈련생들은 기간 동안 선교 관련 강의, 팀빌딩 프로그램, 예배 및 기도회 등에 참석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개인 소지품과 함께 A4 용지 1장 분량의 기도카드 작성 자료(사진, 기도제목, 후원/기도

편지 관리자 정보, 후원계좌 등)를 제출하며, 본부의 사전 검토 후 인쇄된 기도카드 100장을 전달받는 행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어린이·청소년 선교 기구인 케이오지미션(KOG Mission)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6 키즈 캠프(KIDS CAMP)'를 2026년 8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3박 4일간 개최한다.

본 캠프는 사전 등록을 마친 초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케이오지미션 지정 장소에서 열리며, 전 일정 참여를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당초 예정되었던 해외 케냐 선교사 KP 캠프는 항공편 상황으로 가을 이후로 연기되었으며, 8월 12일에는 국내 키즈 캠프 일정이 계획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장지동 기자

NGO

2026년 8월 12일 당일, 국내 주요 기독교 구호 및 복지 NGO 단체들(월드비전, 한국컴패션, 굿피플, 한국해비타트,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현장 행사, 기부 레이스, 미디어 콘텐츠 공개 및 사업 마

감 일정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월드비전 산하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8월 12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관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SINCE 1976』 함께한 감사

의 50년 새로운 축복의 50년을 공식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반세기 of 복지 발자취를 돌아볼 예정이다.

한국컴패션은 후원자 자발적 기부 프로젝트인 'CFC(Cycling For Compassion) 제주 레이스'를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일대에서 진행한다. 이번 레이스는 필리핀 캠페션 수혜 가정에 자전거 택시(패디캡)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아울러 한국컴패션은 같은 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식공감 토크 콘텐츠 '컴패션 다텍' 3부를 공개한다. 3부에서는 박재연 소장과 유기성 목사가 출연하며, 밴드 패퍼톤스의 이장원이 진행을 맡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러닝을

통한 기부 행사 'GIVE RUN 2026 구미'의 공식 참가 접수를 8월 12일부터 개시한다. 접수는 10월 9일까지 굿피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본 대회는 오는 11월 7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해비타트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15명이 참여하는 농촌 봉사 및 교류 프로그램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초롱이동지마을에서 진행한다. 또한, 한국해비타트의 SNS 콘텐츠 담당자 채용 접수 및 청년 대상 사업 모집이 8월 12일자로 마감될 예정이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유한양행과 협력하여 운영한 청년 대상 사회혁신 교육 프로그램('유일한 아카데미')이 8월 12일자로 5주간의 모든 일정을 종료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되어 유한양행 봉사 및 헤이그라운드 등에서 진행되어 왔다. 다니엘 최 기자

2026년 8월 12일 기독교 NGO 주요 일정표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월드비전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50주년 기념행사	8월 12일 (당일)	춘천문화예술회관
한국컴패션	1. 사이클링 기부 프로젝트 'CFC 제주 레이스' 2. 지식공감 토크 콘텐츠 '컴패션 다텍' 3부 공개	1. 8월 12일 ~ 8월 14일 2. 2026년 8월 12일 (당일 공개)	1. 제주도 일대 2. 한국컴패션 공식 유튜브 채널
굿피플	'GIVE RUN 2026 구미' 참가 접수 개시	8월 12일 ~ 10월 9일 (접수 시작)	굿피플 공식 홈페이지
한국해비타트	1. 대학생·대학원생 농촌 봉사 및 교류 2. SNS 콘텐츠 담당 채용 및 청년 프로그램 모집 마감	8월 12일 ~ 8월 14일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초롱이동지마을 2. 한국해비타트 온라인 채용 시스템
희망친구 기아대책 (유한양행 공동)	청년 대상 오프라인 사회혁신 교육 프로그램('유일한 아카데미') 종료	8월 12일 (당일 종료)	유한양행 본사 및 헤이그라운드

구세군, 말레이시아 봉사단 ‘드림해피’ 파견

구세군(사령관 김병윤)이 현대해상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글로벌 나눔 행보를 이어간다.

구세군은 지난 8월 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 지역에 해외봉사단 ‘드림해피’ 12기를 파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봉사단에는 총 16명의 대원이 참여해 현지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친다.

현지 쿠칭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문화 교류와 지역사회 밀착형 봉사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 대원들은 현지 아동들과 직접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상생의 가치를 체득하게 된다. 이와 함

께 후원사인 현대해상의 특화된 안전 가치를 담은 전문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 의미를 더한다.

지난 2012년 첫선을 보인 ‘드림해피’는 구세군의 대표적인 장수 해외봉사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참가 청년 및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민의식을 높이고 상호 호혜적인 국제교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지난 6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11기 활동에서는 청년 봉사단이 아동 생활시설 개보수 및 식사 지원 활동을 완수한 바 있으며, 12기는 교육과 문화 교류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구세군 관계자는 “드림해피 프로젝트는 일방향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공동체가 함께 호흡하며 성



공항에서 떠나기 전 기념촬영 중인 봉사단의 모습. ©구세군

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대한민국 공익법인 1호인 구세군은 지난 1928년부터 시작된 상징적인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통해 국내외 복지사각지대를 보듬어 왔으며, 다가오는 2028년 자선냄비 도입 100주년을 향한 뜻깊은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기독교학술원 영성학 수사과정 수련생 22기 모집

모집기간 오는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이 2026년 하반기 영성학 수사과정 수련생(22기)을 모집한다.

영성학 수사과정은 격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오는 9월 3일 개강한다. 개강 강연은 김영한 원장이 ‘성 바실의 영성(1)’을 주제로 맡는다. 이후 9월 17일에는 최종진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가 ‘구약의 영성’을 진행하며, 10월 1일 한영태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가 ‘웨슬리 성

결론’을 강의한다. 10월 15일에는 원준상 선교사(브라질 선교사)가 ‘치유 영성’을, 10월 29일에는 오성종 박사(전 칼빈대 신대원장)가 ‘신약학 영성’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11월 5일 배본철 박사(성결대 대학원장)이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를 강의하며, 11월 26일 김영한 원장의 ‘성 바실의 영성(2)’ 강연으로 종강한다. 특히 8학기를 수료한 수련생에게는 원장 명의의 영성 수사 증서가 수여된다.

영성학 수사과정은 양재 온누리교회 믿음홀에 위치한 기독교학술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현

직 목회자로서 주보를 제출해야 하며, 영성 수련에 대한 소명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모집 기간은 오는 8월 13일부터 18일까지다. 전형 절차는 1차 서류심사(8월 19일), 2차 면접심사(8월 21일 오후 1시 이후), 최종 발표(8월 22일)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 방법은 기독교학술원 홈페이지(www.acdch.com) 하단 ‘영성학 수사과정’ 탭에서 입학원서를 내려받아 모집 기간 내 이메일(chac@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02-570-7548 또는 010-7772-5344로 하면 된다. 장지동 기자



CCC 사모들, ‘흔들리며 피는 꽃’ 통해 복음 전해



대학생선교회(CCC) 사모들이 전도지를 들고 복음 전파에 나서고 있다. 사모들이 가족과 친구, 이웃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한국CCC

개인전도·노방전도 두 트랙으로 진행...
32명 예수 영접·20명 교회 및 CCC 연결

대학생선교회(CCC) 사모들이 가족과 친구, 이웃 등 태신자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제7회 ‘흔들리며 피는 꽃’(이하 흔꽃)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흔꽃 사역은 전도자가 개인적으로 태신자를 품고 일대일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개인전도’와 전도팀에 합류해 캠퍼스와 지역 현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 등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됐다.

노방전도는 지난 5월 6일부터 14일까지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주요 대학 캠퍼스를 비롯해 불광천과 천안 등지에서 진행됐다.

전도자들은 대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하며 현장에서 전도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사역에서는 BI(Bridges International) 사역의 사모들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도 진행됐다.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에게 직접 다가가 복음을 전하며 캠퍼스 선교

의 영역을 넓혔다.

천안 지역에서는 사모들뿐 아니라 일반 여성 사역팀도 함께 전도에 참여했다. 전도를 처음 배우는 이들도 팀에 합류해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의 실재를 경험하고 함께 사역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흔꽃 사역에는 모두 62명의 전도자가 참여해 565명을 접촉했으며, 이 가운데 113명에게 복음을 제시했다. 그 결과 3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20명은 교회와 CCC로 연결되는 열매를 거뒀다.

전도에 참여한 이들은 지난 5월 18일 열린 ‘흔꽃 감사제’에 모여 각자의 현장에서 경험한 전도의 기쁨과 감동을 나눴다.

참여자들은 전도를 준비하고 현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느낀 두려움과 부족함,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경험한 감사와 은혜를 함께 나눴다.

천안 팀으로 전도에 참여한 권예정 사모는 “두근두근 겁내면서도 가까이 거절 당하기도 마음먹고 나선 터라 감사함으로 전도했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전도 훈련을 사모하게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외국인 유학생 전도에 참여한 비서실 최인영 사모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다가가 영어로 전도하는 시간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잘 들어주어 감사했고, 사모님들과 함께해서

더 용기가 나고 즐겁게 전도했다”고 말했다.

서울사모회는 이번 흔꽃 사역을 통해 경험한 전도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다가오는 2학기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흔꽃 어게인’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흔꽃 어게인’은 오는 9월 30일과 10월 1일, 7일, 8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사모회는 이번 사역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반기 흔꽃 사역을 통해 맺은 전도의 열매를 하반기 사역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장지동 기자

제4회 2026 횃불 디아스포라 청소년캠프(TDYC) 성료

고려인, 중국동포, 탈북민, 미주동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민족 디아스포라 청소년들과 한국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연합 공동체의 은혜를 나눴다.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이 주최한 『제4회 2026 Torch Diaspora Youth Camp(TDYC)』가 지난 8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강원도 철원 성소기도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새 시대, 새 부대,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디모데후서 2:3-4)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전국 각지에서 약 350명의 청소년과 스태프가 참여해 뜨거운 영적 부흥의 현장을 체험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온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한때 교회에 다녔으나 발길이 끊겼던 친구들,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청소년들도 다수 참석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언어를 넘어 예배와 말씀을 통해 복음을 마주한 아이들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감격적인 회복을 경험했다.

또한 청소년들은 별도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주제에 발맞춰 자발적으로 밀리터리북을 준비해 입고 입소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단순한 드레스 코드를 넘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겠다는 다음세대의 당찬 기대와 마음의 준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2023년 시작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TDYC는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반응과 헌신이 뜨거웠다. 집회와

기도 시간마다 수많은 청소년이 앞으로 나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다.

참가자 로만 군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친구들과 예배하고 이야기하며 어느새 하나가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윤가 양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꽃대를 향해 남은 학생의 시기를 합쳐 달려가고 싶다”고 다짐했고, 김안드레이 군은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이번 캠프는 기독교선교햇불재단의 주최와 베이직처치, SEED CHURCH, 정동제일교회, 주안장로교회, 저스트지저스, 할렐루야교회, 전국 횃불교회 교회 및 개인 후원자들의 든든한 지원 속에 진행됐다.

특히 주한고려인목회자연합회(ACPK, 회장 베드미트리 목사)가 고려인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참가자 모집, 통역, 멘토링 등을 세심하게 섬겼으며,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스태프

로 동참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연합 사역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강사진으로는 JGM 대표 다니엘 김 선교사, YT Community 대표 이요셉 목사, ACPK 회장 베드미트리 목사가 나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비전과 정체성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원장 환영 메시지를 통해 주최 측은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을 향해 깊은 애정과 기대를 전했다.

“여러분이 멀리 언어를 배우고 멀리 걸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AI의 등장과 글로벌화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대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햇불재단은 TDYC가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일회성 수련회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한국 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글로벌 리더이자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햇불재단

성결대, 3개 기업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글로벌 교류 확대

K-에듀·K-뷰티·K-웨어 기업과 협력 체계 구축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석)가 K-에듀(Edu), K-뷰티(Beauty), K-웨어(Wear) 분야 기업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과 글로벌 교류 확대에 나선다.

성결대학교는 10일 대학본부 8층 회의실에서 ㈜레티튜, ㈜카이로스글로벌, 테트라젠㈜ 등 3개 기업체와 산학협력 및 글로벌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K-에듀 분야의 ㈜레티튜, K-뷰티 분야의 ㈜카이로스글로벌, K-웨어 분야의 테트라젠㈜이 참여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 기업 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맞춤형 기술 인력 양성과 자원의 상호 활용, 글로벌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특히 성결대학교가 지난 7월 캐나다 방문을 통해 구축한 현지 대학 및 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업과의 산학협력으로 연결하고, 이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결대학교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과 함께 오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성결대학교와 ㈜레티튜, ㈜카이로스글로벌, 테트라젠㈜ 관계자들이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후 성결대학교 공식 마스코트 ‘스쿠아(SKUAH)’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성결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K-페스티벌에도 참여한다. 행사 기간 대학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참여 기업 3곳의 제품과 기술, 브랜드를 현지에 소개할 예정이다.

K-페스티벌에서는 성결대학교의 공식 마스코트인 ‘스쿠아(SKUAH)’도 북미 지역에 처음 공개된다. 성결대학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스쿠아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향후 스쿠아를 대학을 대표하는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메타브릿지캠퍼스(Global Meta Bridge Campus, GMBC)의 현지 시연도 진행

된다. GMBC는 메타버스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와 대학, 학생을 연결하는 글로벌 교육·교류 플랫폼이다. 성결대학교는 K-페스티벌 현장에서 GMBC의 주요 기능과 국제교류 활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성결대학교는 이번 K-페스티벌을 통해 대학이 구축해 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참여 기업의 기술 및 콘텐츠를 연계해 기업들의 해외 홍보와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동시에 대학이 보유한 스쿠아와 GMBC 등 콘텐츠와 플랫폼의 해외 확장 가능성도 현지에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장지동 기자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교회가 추구하는 예배 형태 및 사운드 파악하기



찬양과 설교 / 찬양 팀의 구성

찬양 예배를 시작하기 원한다면 먼저 예배의 순서를 기획하고, 예배에 필요한 스텝들과 뮤지션들을 구성해야 한다. 인력 부족으로 교회 내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모두 총당할 수 없다면 외부 지인들에게 부탁하거나 이미 성공적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특정 교회의 예배 내용이나 팀 운영 방법을 모델로 삼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언제부터 어떠한 형태의 찬양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획자의 깊은 리서치가 필요하다.

설교용 장비와 찬양팀용 장비가 다르다?

목사님의 설교와 사회자의 진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스피커 중심의 전통 예배와 찬양팀의 연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찬양 예배는 필요로 하는 장비가 서로 다르다. 찬양 예배를 드리려면 밴드의 연주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스피커용 시스템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장소와 시스템의 확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밴드만 도입되거나, 반대로 장비는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장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찬양팀을 이끌만한 능력을

가진 인제가 없을 때 발생한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한계를 넘어 성공적으로 찬양 예배를 정착시킬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상황을 인식하자!

각 교회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다르고 규모나 인적 자원도 다르다. 다음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찬양 예배를 시작하기 위한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우리 교회의 상황을 점검하여 보자.

①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사운드의 취향은 어떠한가? 특이한 부분이 있는가? ② 예배와 각종 프로그램의 특징은 무엇인가? ③ 전문 찬양 사역자가 있는가? 아니면 볼런티어(Volunteer) 찬양 사역자가 있는가? ④ 전문 엔지니어가 있는가? 아

니면 볼런티어 엔지니어가 있는가? ⑤ 보조 엔지니어나 미래를 위해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가? ⑥ 교회에 전기 담당자가 있는가? 있다면 잘 협조되고 있는가? ⑦ 기존 음향 시스템은 어떻게 세팅되어 있으며, 찬양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새로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⑧ 찬양팀과 음향 기기 유지 보수를 위한 적당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목회자와 찬양팀, 엔지니어팀 등으로 구성된 예배 기획 위원회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예산의 문제는 합에 부치지 않도록 조금씩 늘려가며 각 교회들의 처지에 맞추어 해결해 나가자. 장비 구입의 우선순위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장비 보수에 관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였다. 아직은 교회의 규모가 리스트의 요소들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현재 가능한 만큼 감사하

면서 준비하면 된다. 어떤 모임도 완벽한 가운데 시작하지는 못하며 저자의 경험으로도 부족함 가운데서 더욱 많은 은혜가 있었다.

◆ 김건수

버클리 음대에서 뮤직 프로덕션 앤 엔지니어링을, 뉴욕대학교에서 뮤직테크놀로지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는 동아 방송예술대학교 음향제작과 전임교수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한국 문화콘텐츠 진흥원 음악 스튜디오 (KOCCA)에 재직 중이다. 참여한 작업들로는 ‘최치우 다이나믹 제즈 쿼텟(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등의 음악감독으로 CCM사역자 김명식’ 사람을 살리는 노래’ 등이 있다. 저서로는 『뮤지션을 위한 사운드 시스템 가이드북』 (예술, 2010), 『뮤지션을 위한 홀 레코딩 스튜디오 가이드북』 (예술, 2011), 『찬양 예배를 위한 사운드 시스템 가이드북』 (예술, 2016) 등이 있다.

찬양자의 마음 조율 2

무엇이 우리를 고무시키는가? 하나님이며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야, 켈리야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 108:1-2)

사편에 마음을 중시한 다윗의 시들은 무수히 많이 나온다. 그에게 마음이란 하나님과 교통하는 클라우드(만물교한 창, 가상저장장치, 유비쿼터스)다. 삶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계신 그분의 진심을 신뢰한다.

찬양은 그가 마음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깨닫고 동의할때 일어난다. 새벽을 깨우는 시편에 선 다윗은 크게 고무되어 있다. 그가 마음을 정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팔자의 견해로는 그가 음악을 탈 줄 알았기 때문이다.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는 능력)

그가 마음을 정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고무되는 사람



이선중 찬양예배자

이었다. 그의 처음이 고무될 만한 영적인 마음의 소유자였다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자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음악을 비롯한 예술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적 정감에 대한 특별한 상처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역시 미의 주변에 놓인 진리와 정의와 존재와 지식에 관한 통찰과 도덕과 종교에 대해 특별한 눈과 예민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흔히 누구에게든 청년기에 나타나는 시기적 천재성과 비슷하다. 청년기에는 누구나 시인이 되며(마적 정감이 고조) 정의의 사자가 되며(정의에 대한 정감이 고조) 철학자가 되며(존재적 사유의 통찰에 대해 고조) 종교가(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고조)가 된다.

마음에 하나님과 공동 클라우드(공유 대를 가진 다윗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의 고무된 열망은 높아만 간다. 그의 태생의 평범함과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용기와 서정성과 참된 우정과 결단을 지닌 것은 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변화를 이끈 동행클라우드 공유) 때문이다.

그의 시의 대부분은 참으로 이 아름다운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사에 바치고 있다. 그의 모든 재산이 영적 접촉에서 비롯되었다면 여러분의 찬양자의 삶에 이런 창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운 개척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격적인 파트너가 된 다윗이 마음의 중심과 미래를 하나님의 의중에 정한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윗에 비해 오늘날 예배자들은 하나

님과 전격적인 파트너가 되는 것에 좀 막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좋은 것이 더 많아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리지만 그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활의 모든 수단이 그 한 분과 깊은 교감 없이 보내고 있어서 그렇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분에 대한 깊은 교감이 필요할만큼 삶에 포함된 그분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서 그분의 영향력이 그리 많지 않아서다. 결정을 자신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여와 호혜와 은혜와 애정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 자신이 가는 노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협조에서 끝난다. 자신이 삶의 중심이기에 그분의 의사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아니 그런가?

만약 예배자가 예배에 임할 때마다 일어나는 감성자의 기분에 의해서만 치르는 감정의 소요일 뿐이라면 요가 클럽에 다니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요가 클럽에 가서 정신 수양과 몸과 영을 유연하게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다. 그 이상은 자신의 몫이지 요가 강사에게 자신의 삶까지 책임지게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요가 선생이 아니다. 나머지 일상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잠시 시간내서 도움이 될만한 몸과 영을 수련하는 게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필요한 수단으로 계신 게 아니다. 예배에는 전 우주적인 자기 변혁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논리 전개와 확산을 달갑지 않아하는 예배자는 오늘날 아주 많다. 자신의 전부를 그 하나님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분이 그 일을 자세하게 도울 것 같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그 이상을

심각하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병이 들거나 파산을 했거나 자식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할 수는 있지만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나 결혼 배우자를 정하는 일이나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 일에는 그분의 도움과 생각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결정한다. 그분은 그저 자신을 도우면 만족한다. 그러나 예배자가 그분이 그 모두를 결정하실 수 없는 분으로 모실 거라면 그분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으신다. 아니 나타나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이미 그분을 기대하지 않기에 찾아오시는 그분을 이미 막고 있는 것이다.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전적인 변화와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예배자는 이 기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미 옷을 입은 자로 고백하는 자다. 주께 바친 삶이 되어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삶이 예배라 한다고 말한다면 이런 뜻이다. 하나님은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자에게 이런 하나님임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그분은 여전히 손님이요 수단에 불과하다. 단지 초대해서 잘 대접해 드리고 싶어 할 뿐이다. 그 이상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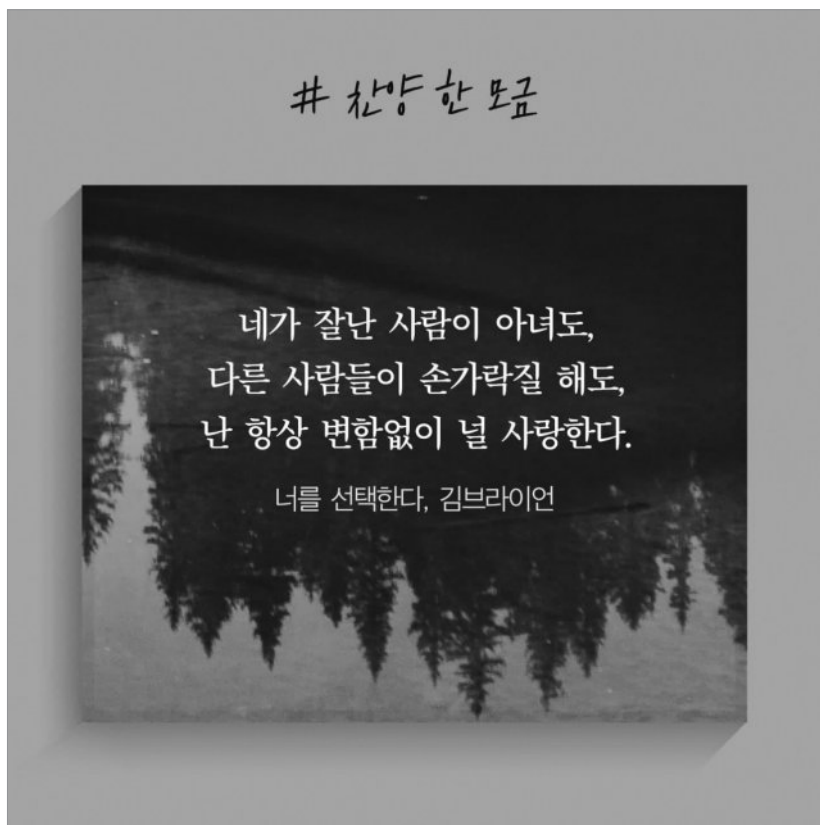
주께 바친 삶이 되어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날 삶은 분주해졌고 풍요로워서 더 이상 자기 이외의 자들이 자신을 위해 기쁨을 준다 해도 시간이 없어 받지 못하는 시대에 산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 세상은 벌써 자신들을 비추는(나르시시즘)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거대하고 숭엄한 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니 자신과 관련된 인자에만 속이 발달되어서 작은 아름다움에 도취하여 산다. 예배자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다 세상 때문만이 아니다. 자신이 하나님되어서 그렇다.

예배는 자신이 드러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때 일어난다. 찬양하는 노래쟁이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영이 몰려올 때 자신이 부를 수 없는 놀라운 영의 능력을 경험한다. 찬양을 노래하는 가수라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자신의 노래로 많은 대중을 휘어잡는 순간에 일어나는 즉발적인 영감은 자신의 노래 실력

을 뛰어넘는 어떤 경지에 설 때 일어난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 소모가 극에 달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자신 밖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영이 고무될 때이다. 하나님은 찬양자가 가장 자신을 향해 가깝게 찾아올 때 이 선물을 주신다. 그분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아는 찬양자는 복을 이미 크게 받은 것이다.

◆ 이선중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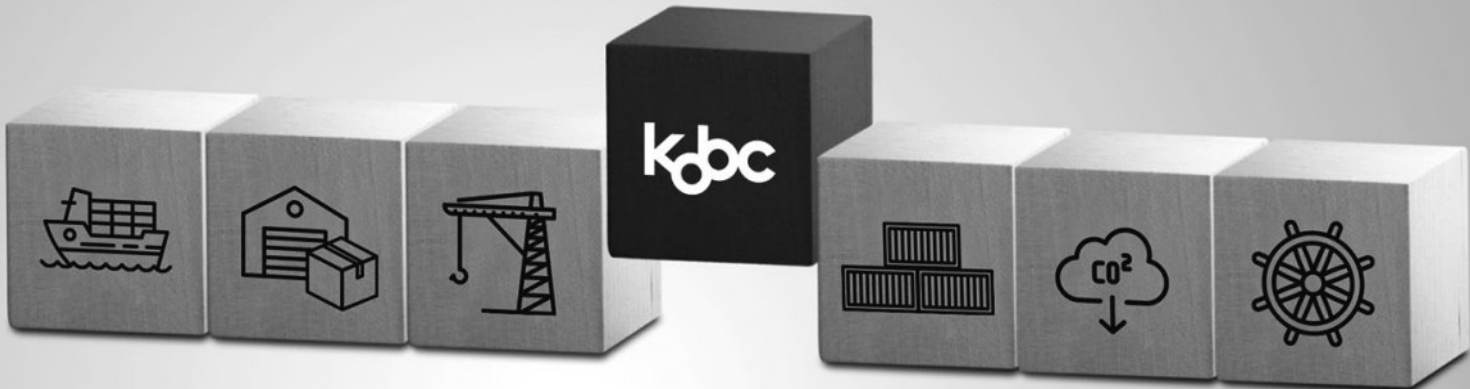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Cantor, Music Pastor /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 / VKCC 지휘자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록 숲에서 종이비행기까지… 네 작가가 건넨 여름

정덕원·나지윤·민선홍·정윤하 4인전

인사동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중견 작가 정덕원·나지윤·민선홍·정윤하의 4인전 ‘여름을 지나는 네 개의 시선’이 2026년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5층에서 열렸다.

전시는 네 작가의 최신작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숲과 꽃, 여행을 각자의 색채와 조형언어로 풀어내며 자연과 일상에서 발견한 희망과 행복을 담았다.

함께 활동해 온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서 작업 세계를 공유하고 새로운 표현과 향후 창작 방향을 모색했다.

정덕원 작가는 ‘시선이떠무는곳’에서 황목색과 연두색 햇빛을 짙은 청록색 그늘과 대비해 여름 숲의 깊이와 생동감을 표현했다.

나지윤 작가는 ‘수줍은 바램’에 붉은 톨립을 담았다. 꽃잎의 결을 세밀하게 살리고 보랏빛 배경과 대비해 내면의 희망과 소망을 드러냈다.

두 작가는 숲과 꽃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과 그 안에 깃든 정서를 보여줬다.

민선홍 작가의 ‘Drama Happiness’는 강렬한 색채와 기하학적 구도에 꽃을 걸



자신들의 작품 앞에 선 4인의 작가들. © 갤러리 측 제공

함해 질서와 다양성, 자연의 활력이 공존하는 장면을 만들었다.

정윤하 작가는 ‘행복한 여행의 시작’에 종이비행기와 캠핑 풍경을 담았다. 어린 시절의 꿈과 자유로운 상상, 일상에서 벗어난 휴식과 여행의 설렘을 표현했다.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색채와 구성으로 삶의 활력과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행복을 전했다.

네 작가는 모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회원이자 1993년 창립된 한국자연동인회 소속이다. 이번 ‘여름을 지나는 네 개의 시선’을 통해 자연과 일상, 희망과 행복을 바라보는 각자의 작품세계를 소개했다. 이나라 기자

SK텔레콤, AI로 전국 10곳 ‘독립운동 기억하길’ 조성… 선·이봉주도 달렸다

독립운동가 1만8776명 활동 기록 분석해

44.6km 코스 구성… 광복 81주년 기념 캠페인 전개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독립운동가 1만8776명의 활동 기록을 분석하고, 전국 10곳에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걷거나 달릴 수 있는 ‘기억하길’ 코스를 조성했다.

SK텔레콤은 국가보훈부의 협조를 받아 독립기념관과 함께 광복 81주년 기념 캠페인 ‘1만8776명의 독립운동가 기억하길’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록 속에 남아 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활동을 오늘날 시민들의 일상 공간과 연결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SK텔레콤은 국가보훈부 공헌전자자료관에 등록된 독립운동가 1만8776명의 활동 기록을 자체 AI 파운데이션 모델 ‘A.X K2’로 분석했다. 이후 분석 결과를 위치 기반 데이터와 결합해 독립운동 관련 인물과 장소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10개 코스 44.6km 조성

‘기억하길’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주요 도시 10곳에 총 44.6km 규모로 조성됐다.

각 코스에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의 역사, 관련 장소들이 담겼다. 시민들이 실제 공간을 걷거나 달리며 그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캠페인에는 정재현 SK텔레콤 대표와 가수 선, 마라토너 이봉주, 뮤지컬 배우 홍지민, 독립운동가 후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반 공개에 앞서 전국의 ‘기억하길’을 직접 달렸으며, 관련 영상은 지난 8일 SK텔레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독립을 이끈 여성들을 기억하길’ 코스에서는 정 대표와 선수 마라토너 이봉주, 뮤지컬 배우 홍지민은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운동의 흔적을 담은 인천 ‘교복



정재현 CEO와 가수 선이 종로구에 조성된 ‘독립을 이끈 여성들을 기억하길’ 코스 중 새문안교회 앞에서 함께 달리는 모습. ©뉴시스

여성들의 기개를 이 길 위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시대가 강요한 침묵을 깨고 당당하게 자주독립을 외쳤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가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봉주·홍지민·독립운동가 후손 참여 마라토너 이봉주는 서울 중구와 종로구를 연결하는 ‘교육으로 밝힌 독립운동을 기억하길’ 코스를 달렸다.

이봉주는 “마라톤은 긴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완주한다”며 “독립도 그랬다”고 말했다. 뮤지컬 배우 홍지민은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운동의 흔적을 담은 인천 ‘교복

입은 영웅들을 기억하길’ 코스에 참여했다. 홍지민의 아버지 홍창식 선생은 16세에 항일활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다.

천안의 ‘천안 만세의 불꽃을 기억하길’ 코스에는 독립운동가 이교욱 선생의 증손녀 최서윤 씨가 참여했다.

SK텔레콤은 참여자들이 코스를 직접 달리며 독립운동가의 활동 장소와 역사를 되짚도록 캠페인을 구성했다. 이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은 SK텔레콤 유튜브 채널에 이어 독립기념관 미디어큐브에서도 한 달간 상영된다.

◆시민들도 ‘런데이’ 통해 직접 참여 일반 시민들은 달리기 애플리케이션 ‘런데이’를 통해 전국 10곳의 ‘기억하길’을 직접 걷거나 달릴 수 있다.

SK텔레콤은 공헌전자자료관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기록을 AI로 분석하고 실제 공간과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캠페인 코스를 걷거나 달린 이용자와 공식 유튜브 영상에 응원 댓글을 남긴 이용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2026 무한 도전 Run in 경주’ 참가권도 제공한다. 노형구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05:00	00 광림교회 제38회 호별산 기도회 27일차 40 하나님의 손길	2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2026년 08월 12일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8월 12일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CBS 은혜의 시간(125회) 30 TV강단 영광재일(이기웅)	10 장충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50 복음으로 미래를 열다
0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안신재일-허요환 30 생명의 말씀 성령의새바람-김승욱	10 GOODTV 오늘의 기도 20 사랑의 메시지 부인 (박현연) 50 GOODTV NEWS	10 [말씀] 김우성 목사(영락교회)(271회) 50 [말씀] 황성수 목사(한사랑교회)(6회)	00 생명의 양식 삼승(강형석) 30 믿음의 말씀 (김대조)(373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07:00	00 CTS뉴스 20 주성진 목사의 주의 길 35 생명의 말씀 포항장성-박석진 50 생명의 말씀 창원상남-이장교	1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20 행복한 십터 대구서문 (소문수) 50 비전설교 한성 (도원욱)	30 휴먼네트워크(44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쁨인 새벽(720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25회)	00 청운교회 주일예배실황 이필산 목사
0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13회)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8월 12일 20 [말씀] 정강신 목사(예수합동교회)(595회)	00 하나님의 음성(2회) 20 CBS 성서학당 (최주훈)(4539회) 명화로 읽는 그리스도의 생애 15강	00 성지가 좋다(542회) 광야 끝에서 만난 소망 (요르단, 세렛시네) 30 비전메시지 은혜도림교회 최인선 목사
09:00	00 신교회행진 전광교회 50 두란노 성경교실·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역대기 3장 이정훈 목사	00 시토피아 12세 30 비전설교 선한목자 (김다위)	00 [말씀] 이진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143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9회) 50 구약의 세계로 (오삼소)2(23회)	10 새롭게하소서(11480회) 교사 박해현 2부	00 플다보면(31회)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 디모데와의 만남 40 성경 속 인물사(19회) 호세아 : 사랑하라, 다시 사랑하라
10:00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다큐 더 로드 30 여의도순복음 수요일예배 이영훈 목사	20 RE바이블(40회)	00 CBS NEWS 10 20 맨투맨 처치(9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29회)	00 꽃보다 미소(9회)
11:00	00 7000마라클-열방을 향하여 우간다 진자 쿠미 50 신앙에세이	30 행복한 십터 화광 (윤호균)	10 [말씀] 백성욱 목사(오늘의교회)(8회) 50 Q&A 107 소요리문답(3회)	00 예수 영광의 면류관(6회)	00 소문난 성경교실(736회) 이기철 목사 첫 번째 2강 은혜로 읽는 창세기 : 에덴의 불 탑 30 C채널 매거진 컷데이(414회) 50 믿음의 라팩션(22회) 충청북도 음성군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하늘중앙-유영완	00 GOODTV NEWS 20 이영훈 목사의 힐링 스토리 30 사랑의 메시지 마라나타 (이영은)	1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9회)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를형제교회)(554회)	00 TV강단 시온(박성준) 30 TV강단 포도나무(여주봉)	30 강연소 통(74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까?
13:00	00 생명의 말씀 대구반야월-이승희 30 신앙에세이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13회)	00 행복한 십터 오메가 (황성은) 30 행복한 십터 높은뜻정의 (정재성)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89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49회)	20 2025 한소말교회 감사 부흥회(24회)	20 플다보면(31회)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 디모데와의 만남
14:00	00 [생방송]Calling GOD(2547회) 50 내가 매일 기쁘게 임정열 권사	00 GOODTV 특별간중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8월 12일 20 은누리교회 수요일예배시지(406회)	0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30 새롭게하소서(11109회) 이영구 집사	00 백석의 생애(20회)
15:00	40 7000마라클-열방을 향하여 우간다 진자 쿠미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324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8월 12일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537회) 고린도후서 22강	00 2026 내가 산을 향하여
16:00	30 생명의 말씀 두란노-이상문	00 사랑의 메시지 성찬 (오원호) 30 행복한 십터 세계로방주 (방재길)	00 하용조 목사의 오한복음 강해(42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9회)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336회)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107회)	00 내 삶의 행복(220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17:00	00 사랑의 말씀 오정현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독성 3분 미라클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사론의 꽃 필 때	3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356회)	10 더 콜라(179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2035회) 50 영혼의 양식_양천(김동진)	00 성지가 좋다(542회) 광야 끝에서 만난 소망 (요르단, 세렛시네) 30 오직주님 영성의 위상 김하나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예원-정은주 30 TV찬양예배 한성교회	10 사랑의 메시지 출천 사랑의(윤대영) 40 더 깊은 울림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10 THE NEW 하늘빛향기 I(43회) 50 2026 예배선교 컨퍼런스 COUNTDOWN(7회)	00 TV강단 한성(도원욱) 30 TV강단 남양주한마음(남상진)	30 복음강단 군포세원교회 안성복 목사
19:00	2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30 광림의 시간 김정석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		00 거룩한 뜻 세움의 시간(72회) 30 TV강단 (천영태)	00 말씀의 창 인천제2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일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 세한-주진	00 이영훈 목사의 힐링 스토리 10 행복한 십터 감사드림 (차영아) 40 노크토크	20 RE바이블(40회)	00 한소말 말씀 (최봉규)(178회) 50 크리스천칼럼_분당구미(김대동)	30 글로벌 신앙토코소 왓츠업(60회) 단어 속에 갇힌 기독교
21:00	00 메신저스 원유경 목사 30 서정희의 매일성경(113회) 50 CTS뉴스	40 GOODTV NEWS 12세	00 청동영광교회 주일예배 2026년 08월 12일	00 CBS 성서학당 (최주훈)(4539회) 명화로 읽는 그리스도의 생애 15강 50 살롱 살롱(39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199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역대기 3장 이정훈 목사	00 다나델 기도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8월 12일 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28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480회) 교사 박해현 2부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40회) 20 소문난 성경교실(733회) 오택현 교수 다섯 번째 15강 중간기 시대 를 찾아가다 : 해롯 가문의 역사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10 [CTS믿음의 명작] 밀레니엄특강 영어강사 정철 22강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매일 주와 함께	10 J.D. 그리어의 다윗의 삶(30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8월 12일 5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9회)	10 맨투맨 처치(9회) 40 잘 믿고 잘 사는 법(15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25회)	00 이석 목사의 삶어낸 복음을 찾아서(271회) 50 라바이츠 워십
00:00	00 Calling GOD(2547회) 50 주성진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사랑의 메시지 순천 신성 (김만철) 40 선교의 땅 탄자니아를 가다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8월 12일 20 CGN 비전특강(697회)	10 하나님의 음성(2회) 30 세상을 보는 창(320회)	00 사랑의교회 해-남은 사랑이시라 오정현 목사
01:00	00 더 초존 시즌5(더빙)(3회) 15세	10 예배실황 한소말 (류영모/최봉규)	00 [말씀] 화종복 목사(남서울교회)(425회) 4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침례교회)(267회)	0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4회) 40 성경의 시대(53회)	00 TBC 깊이 금금한 신앙, 몰랐던 이017(84회) 40 성경 속 인물사(19회) 호세아 : 사랑하라, 다시 사랑하라
02:00	0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7000마라클-열방을 향하여 우간다 진자 쿠미	10 노크토크	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665회)	3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00 말씀의 창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33회)
03:00	00 두란노 성경교실·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역대기 3장 이정훈 목사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GOODTV 특별간중	00 [Global Sermon] J.D. Greear's The Life Of David(30회) 30 [말씀] 류영렬 목사(와신통증양장로교회)(315회)	00 올포맨(760회)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04:00	00 TV새벽예배 만나교회 4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0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여의도제일 (박대준) 30 새벽을 깨우는 기도 50 GOODTV 새벽예배 이영훈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747회)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4538회) 마태복음 43강 50 CBS 교회소식(1063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4회) 이동원 목사 30 말씀 관동 이름 목사의 성경 백작기(480회) 고린도전서 12장 맥잡기6